

한미 FTA 대응 전북발전전략 세미나

일시 : 2007. 6. 13(수) 14:00

장소 : 전라북도청 대회의실(4층)

주관 : FTA 국내대책위원회, 전라북도

주최 : 전북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

전북미래아카데미

목 차

▶ 토론회 일정	1
▶ 개 회 사	3
▶ 발제 1 : 한미 FTA가 전북지역에 미치는 영향	5
▶ 발제 2 : 한미 FTA체결 이후 전북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59
▶ 토론메모	79

토론회 일정

- ▶ 등록 (13:40 -14:00)

- ▶ 개회식 (14:00 -14:15)
 - 국민의례
 - 개회사 : 신기덕 (전북발전연구원장)
 - 축사 : 윤영규 (FTA 국내대책위원회 단장)
 - 환영사 :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 ▶ 주제발표 (14:15 -14:45)
 - 제1주제 “한미 FTA가 전북지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승 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한미 FTA체결 이후 전북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 이항구(산업연구원 수송기계산업팀장)

- ▶ 종합토론 (14:45 -15:55)
 - 좌 장 : 윤충원(전북대학교 교수, 한국무역학회 회장)
 - 강동희(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재호(전북일보 정치부장)
 - 송병주(전북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 신현승(전라북도 친환경농업과장)
 - 이현웅(전라북도 전략산업과장)
 - 임장옥(전통식품협회 전북지회장, 금계식품 대표)
 - 장성운(전북한우협동조합 조합장)
 - 최규재(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 정리 및 폐회 (15:55 - 16:00)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 전북발전연구원 3대 원장에 취임한 신기덕입니다.

오늘 우리 전북발전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미래전북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세미나에 참석하신 FTA 국내대책위원회 윤영규 단장님, 윤충원 한국무역학회 회장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426일간의 긴 여정을 끌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4월 2일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찬반세력간의 논리가 격렬하게 맞부딪치고 있고 산업별로 피해가 예측되는 부분 등이 있어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찬반 논쟁에 빠져있기 보다는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쟁력 향상과 경제도약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미FTA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미FTA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고 더러는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뚫을 수 있는 틈새를 찾아내는 공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곧이어 진행될 한·중간, 한·일간 FTA협상의 대응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한미 FTA체결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여 FTA와 전북의 발전을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전략도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하며, 토론의 장을 넘어 정책 수행 및 전라북도 각 시군의 공동번영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 6. 13

전북발전연구원장 신 기 덕

한미 FTA가 전북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승 형

1. 서 론

-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국가임
- 1995년 WTO 출범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라는 기치 아래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이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 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 체제에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2006년 7월 현재) 197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WTO 출범(1995)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147개에 이르고 있음
- 한·미 FTA는 2006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어 이제 국회 비준만 남아있는 상태임
- 한·미 FTA는 한 - 싱가포르 FTA, 한 - 칠레 FTA,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달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이 단순히 통상확대나 자유화 보다도 국내의 각종 규제 완화와 지식정보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신성장동력의 재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협상의 효과는 다양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로 산업구조, 지역특화,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따라서 한미 FTA체결이 전북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에 갖고 추진됨
 - 첫째, 한미 FTA체결이 전북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파악함. 특히 농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함
 - 둘째,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전북지역의 경제현황

1) 지역경제 일반현황

■ 전북지역 주요 현황

- 전북의 인구는 6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이후엔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임
- 전북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2005년 말 22조 4,815억 원으로 전국합계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북의 전국대비 면적비중(8.1%)이나 인구비중(3.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임

<표 2-1> 전북지역 주요 통계 현황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성장률		
					'95-'00	'00-'05	'95-'05
총인구 (명)	전국(A)	45,981,910	47,976,730	49,267,751	0.85%	0.53%	0.69%
	전북(B)	2,009,651	2,006,500	1,895,500	-0.03%	-1.13%	-0.58%
	B/A(%)	4.37%	4.18%	3.85%			
GRDP (백만원)	전국(A)	485,493,634	577,970,942	729,240,586	3.55%	4.76%	4.15%
	전북(B)	16,819,535	18,977,807	22,481,525	2.44%	3.45%	2.94%
	B/A(%)	3.46%	3.28%	3.08%			
1인당GRDP (백만원)	전국(A)	10.6	12.0	14.8	2.67%	4.20%	3.44%
	전북(B)	8.4	9.5	11.9	2.48%	4.63%	3.55%
	B/A(%)	79.27%	78.51%	80.13%			

주: 2000년 기준년가격

자료: 통계청(KOSIS)

- 전북의 지역경제와 재정은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
 - GRDP점유율이 계속 하락 추세이고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함
- 전통적인 산업구조 기반을 보유해 혁신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함
 - 자동차 및 생물산업의 비중, 집적도, 연구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 문화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
 - 연구개발 인력의 대부분은 대학이 차지



전북 재정자립도 추이

■ 전북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 전북은 21세기 환황해경제권 생산·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발전 중추인 핵심거점지역 전주-익산-군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산업벨트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과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발전모형을 구축할 계획임
- 전북은 4대 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등으로서 FTA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자동차·기계산업과 생물산업임
- 전북의 지연산업은 지역에 연고를 둔 특화산업으로 주로 생물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한미FTA로 타격이 클 1차 산물 위주에 해당
 - 복분자(고창), 장류(순창), 유가공(임실), 한우(장수), 파프리카(김제), 짓갈(부안), 옷칠 및 허브(남원) 등
 - 귀금속·보석(익산), 니트(익산, 전주) 등

■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

- 전북은 새만금 개발 및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다음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선정하였음

- 첨단 부품·소재산업 육성(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식품산업 ABC(Agri Biz Cluster) 클러스터 구축
- 지역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Science City) : 국가연구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국가연구단지 지정 추진

2) 지역의 산업구조

- 전북의 산업별 비중은 1995년 이후 농림어업부문은 15.2%에서 점차 그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2005년 기준 농림어업 11.9%, 광공업 27.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0.6%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2-2> 전북지역 경제 산업구조 변화(GRDP)

	1995		2000		2005		연평균 산업성장률 '95-'05
	백만원	비중	백만원	비중	백만원	비중	
전국	438,016,770		514,658,056		645,772,047		3.96%
1차 산업	22,638,824	5.17%	23,750,741	4.61%	23,033,401	3.57%	0.17%
2차 산업	115,433,855	26.35%	151,029,545	29.35%	203,363,595	31.49%	5.83%
3차산업	299,944,091	68.48%	339,877,770	66.04%	419,375,051	64.94%	3.41%
전북지역	15,170,464		17,160,347		20,126,221		2.87%
1차 산업	2,304,776	15.19%	2,324,351	13.54%	2,393,807	11.89%	0.38%
2차 산업	3,300,318	21.75%	4,375,282	25.50%	5,543,491	27.54%	5.32%
3차산업	9,565,370	63.05%	10,460,714	60.96%	12,188,923	60.56%	2.45%

자료: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2차산업은 광공업에 한함

- 중분류 기준 전북 산업구조는 농업 및 임업이 전국대비 총부가가치가 10.2%, 입지상계수가 3.3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이 여전히 전북의 특화산업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공공부문 또는 소비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임
-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제

조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제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이 부진함을 보임

<표 2-3> 전북의 주요산업 비중¹⁾(2005)

	총부가가치 (당해년가격)			종사자수			사업체수	
	백만원	전국비중	입지상	명	전국비중	입지상	개소	전국비중
전라북도	22,451,261	3.1%		478,547	3.2%		118,809	3.7%
농림어업	2,371,256	10.2%	3.30	2,128	6.6%	2.09	182	7.9%
광업	71,934	4.5%	1.47	728	3.8%	1.19	80	4.3%
제조업	5,563,941	2.7%	0.87	82,279	2.4%	0.75	9,439	2.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425,398	2.5%	0.80	2,675	4.0%	1.28	114	7.4%
건설업	2,412,415	3.6%	1.15	24,517	3.1%	1.00	3,345	3.7%
도소매업	1,073,987	2.1%	0.69	81,728	3.3%	1.06	34,289	4.0%
숙박및음식점업	525,472	2.7%	0.88	55,490	3.3%	1.04	21,874	3.5%
운수업	741,568	2.3%	0.75	26,867	3.0%	0.97	11,801	3.5%
통신업	491,302	2.8%	0.89	5,994	4.3%	1.37	508	5.4%
금융보험업	1,429,416	2.4%	0.77	20,610	3.5%	1.10	1,392	4.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753,995	1.9%	0.61	24,186	1.6%	0.52	5,028	2.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2,193,506	4.7%	1.53	27,014	5.0%	1.59	906	7.2%
교육서비스업	1,911,939	4.6%	1.48	51,715	4.3%	1.37	5,909	4.6%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66,643	3.8%	1.24	26,871	4.1%	1.31	3,160	4.2%
기타서비스업	718,489	2.6%	0.86	45,745	3.8%	1.21	20,782	4.3%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기준

■ 전북의 농업 지표

- 농업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은 전북은 행정구역면적 중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5.6%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 경지면적의 11.6%에 이르는 수치임
- 지역내 농가인구의 비중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2005년 16.8%) 여전히

1) 입지상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구성비를 전국의 동일산업구성비와 비교하여 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함

$$LQ_{ij} = \frac{Q_{ij} / Q_j}{Q_i / Q} = \frac{j\text{지역의 } i\text{산업 구성비}}{\text{전국의 } i\text{산업 구성비}}$$

여기서, LQ가 1보다 큰 경우 j지역의 i산업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1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이고, 1인 경우는 그 지역의 해당산업이 전국수준과 동일한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7.0% 수준을 보이는 전국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농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수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지역내 비중 26.8%로 전국보다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생산과 수입 모두 높은 특징을 보임

<표 2-4> 전북의 농업 지표 추이

			1995		2000		2005	
			값	전국 비중	값	전국 비중	값	전국 비중
전 라 북 도	면적 (km ²)	국토면적(a)	8,058.03	8.1%	8,050.07	8.1%	8,054.62	8.1%
		경지면적(b)	2337.45	11.5%	2185.57	11.5%	2132.7	11.6%
		(b)/(a)	29.0%		27.1%		26.5%	
	인구 (명)	총인구(a)	2,009,651	4.4%	2,006,500	4.2%	1,895,500	3.8%
		농가인구(b)	485,276	10.0%	388,907	9.6%	318,998	9.3%
		(b)/(a)	24.1%		19.4%		16.8%	
	부가가치 (백만원)	총부가가치(a)	12,805,109	3.5%	17,160,347	3.3%	22,451,261	3.1%
		농림어업 분야(b)	2,131,218	9.4%	2,324,351	9.8%	2,371,256	10.2%
		(b)/(a)	16.6%		13.5%		10.6%	
	수출액 (천달러)	전품목 수출총액(a)			2,881,057	1.7%	4,850,995	1.7%
		농림수산물 수출액(b)			57,682	1.9%	78,864	2.3%
		(b)/(a)			2.0%		1.6%	
수입액 (천달러)	전품목 수입총액(a)			1,501,319	0.9%	2,456,326	0.9%	
	농림수산물 수입액(b)			368,452	3.4%	658,005	4.3%	
	(b)/(a)			24.5%		26.8%		
전 국	면적 (km ²)	국토면적(km ²)(a)	99,268.38		99,460.74		99,646.16	
		경지면적(km ²)(b)	20,327		18,989		18,356	
		(b)/(a)	20.5%		19.1%		18.4%	
	인구 (명)	총인구(명)(a)	45,981,910		47,976,730		49,267,751	
		농가인구(명)(b)	4,851,080		4,031,065		3,433,573	
		(b)/(a)	10.5%		8.4%		7.0%	
	부가가치 (백만원)	총부가가치(백만원)(a)	371,095,187		514,658,056		726,193,274	
		농림어업 부가가치(b)	22,613,288		23,750,741		23,253,979	
		(b)/(a)	6.1%		4.6%		3.2%	
	수출액 (천달러)	수출총액(a)			172,267,510		284,418,743	
		농림수산물(b)			3,066,366		3,423,710	
		(b)/(a)			1.8%		1.2%	
	수입액 (천달러)	수입총액(a)			160,481,018		261,238,264	
		농림수산물(b)			10,783,202		15,337,988	
		(b)/(a)			6.7%		5.9%	

자료: 통계청, 전북통계연보, 한국무역협회

■ 전북의 주요 제조업 현황

- 전북의 제조업 현황은 2005년 말 사업체 수가 2,434개로 전국대비 2.1%를, 부가가치는 7조 7,956억 원으로 전국대비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종사자 및 출하액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2-5> 전북 제조업의 부문별 현황

부 문	1999년	2002년	2005년
사업체수(개)	2,123 (2.3%)	2,358 (2.1%)	2,434 (2.1%)
월평균 종사자수(명)	71,910 (2.8%)	70,509 (2.6%)	72,218 (2.5%)
출하액(백만원)	14,703,616 (3.1%)	16,513,621 (2.6%)	22,248,579 (2.6%)
부가가치(백만원)	6,222,601 (3.1%)	6,418,912 (2.6%)	7,795,779 (2.5%)

주: 5인 이상 제조업체 대상, 백분율은 전국 총계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제조업 주요업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문이 6조 1,365억 원(전북 제조업 생산액의 2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국 비중의 2.5배 가까이에 이르는 비교우위를 보임
 - 주요 자동차생산업체는 GM대우(군산공장), 현대차(전주공장),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있으며 전국생산량의 7.8%를 차지함
- 자동차의 뒤를 이어 화학 부문 4조 3,988억 원(19.9%), 음식료품 4조 70억 원(18.1%) 등의 제조업종의 생산액이 많게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료품의 생산액이 전국비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전북 내에서 점유함
- 전북 지역내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제조업종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 음식료품>섬유>화학 등의 순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자동차>음식료품>화학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자동차>화학>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산업의 지역 내 점유비중이 높음
- 제조업 분야를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수, 종사자수, 그리고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수준과 비교한 결과, 음식료품, 목재/

나무제품, 펄프/종이 등, 화합물/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과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업종에서 우위를 보임

- 담배제조업, 봉제의복/모피제품과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은 사업체수는 많으나 종사자수나 부가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여 해당 업종의 대부분 사업체에서 규모의 영세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표 2-6> 주요업종 '05년 생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주요 업종 및 세부업종	전국	전북	전국비중	전북비중
제조업 전체	851,788,994	22,124,640		
자동차	97,782,570	6,136,518	11.5%	27.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7,782,570	6,136,518	11.5%	27.7%
섬유	34,333,229	664,026	4.0%	3.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1,926,677	480,093	2.6%	2.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406,552	183,933	1.5%	0.8%
전기전자	179,046,636	870,903	21.0%	3.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0,242,242	370,183	3.6%	1.7%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40,049,095	477,866	16.4%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755,299	22,854	1.0%	0.1%
기계	80,420,847	970,012	9.4%	4.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460,875	963,591	8.5%	4.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7,959,972	6,421	0.9%	0.0%
철강	84,463,716	1,423,121	9.9%	6.4%
제 1차 금속산업	84,463,716	1,423,121	9.9%	6.4%
화학	117,357,207	4,398,837	13.8%	19.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9,519,819	3,728,123	9.3%	16.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7,837,388	670,714	4.4%	3.0%
생활용품	15,714,178	288,253	1.8%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217,245		0.5%	0.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1,496,933	288,253	1.3%	1.3%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48,399,023	4,007,025	5.7%	18.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746,238	1,186,549	1.7%	5.4%
소 계	672,263,644	19,945,244	78.9%	90.1%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표 2-7> 주요 제조업종별 전북비중 현황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개	전북대비	명	전북대비	백만원	전북대비
제조업 전체	2,385	100.0%	71,543	100.0%	7,719,742	100.0%
자동차	152	6.4%	14,534	20.3%	1,901,389	24.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2	6.4%	14,534	20.3%	1,901,389	24.6%
섬유	298	12.5%	7,236	10.1%	325,305	4.2%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15	4.8%	3,678	5.1%	237,123	3.1%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3	7.7%	3,558	5.0%	88,182	1.1%
전기전자	106	4.4%	5,359	7.5%	307,227	4.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1	2.6%	1,401	2.0%	143,015	1.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7	1.1%	3,678	5.1%	152,981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	0.8%	280	0.4%	11,231	0.1%
기계	156	6.5%	4,326	6.0%	373,553	4.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	6.3%	4,231	5.9%	369,668	4.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6	0.3%	95	0.1%	3,885	0.1%
철강	37	1.6%	2,613	3.7%	300,826	3.9%
제 1차 금속산업	37	1.6%	2,613	3.7%	300,826	3.9%
화학	261	10.9%	8,620	12.0%	1,554,824	20.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7	5.3%	5,505	7.7%	1,277,945	16.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4	5.6%	3,115	4.4%	276,879	3.6%
생활용품	114	4.8%	1,552	2.2%	91,039	1.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0.2%		0.0%		0.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10	4.6%	1,552	2.2%	91,039	1.2%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505	21.2%	13,276	18.6%	1,402,596	18.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2	3.4%	3,009	4.2%	465,442	6.0%
소 계	1,711	71.7%	60,525	84.6%	6,722,201	87.1%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표 2-8> 주요 제조업종별 전국비중 및 특화도

주요업종 및 세부업종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개)	전국 비중	(명)	전국 비중	입지 상	(백만원)	전국 비중	입지 상
제조업 전체	2,385	2.0%	71,543	2.5%		7,719,742	2.5%	
자동차	152	4.0%	14,534	5.7%	2.30	1,901,389	5.9%	2.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2	4.0%	14,534	5.7%	2.30	1,901,389	5.9%	2.40
섬유	298	1.7%	7,236	2.7%	1.08	325,305	2.2%	0.88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15	1.3%	3,678	2.4%	0.96	237,123	2.8%	1.1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3	2.2%	3,558	3.1%	1.24	88,182	1.4%	0.57
전기전자	106	0.7%	5,359	0.9%	0.37	307,227	0.4%	0.1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1	1.0%	1,401	1.0%	0.39	143,015	1.4%	0.5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0.5%	3,678	1.0%	0.38	152,981	0.2%	0.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	0.6%	280	0.5%	0.19	11,231	0.3%	0.12
기계	156	0.9%	4,326	1.2%	0.49	373,553	1.2%	0.5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	0.9%	4,231	1.3%	0.52	369,668	1.4%	0.5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6	0.7%	95	0.3%	0.14	3,885	0.1%	0.05
철강	37	1.3%	2,613	2.2%	0.90	300,826	1.2%	0.48
제 1차 금속산업	37	1.3%	2,613	2.2%	0.90	300,826	1.2%	0.48
화학	261	2.0%	8,620	2.6%	1.03	1,554,824	3.7%	1.5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7	3.1%	5,505	4.2%	1.68	1,277,945	4.7%	1.9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4	1.5%	3,115	1.5%	0.61	276,879	1.9%	0.76
생활용품	114	1.4%	1,552	1.4%	0.55	91,039	1.5%	0.61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0.2%		0.0%	0.00		0.0%	0.0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10	1.8%	1,552	1.9%	0.76	91,039	2.1%	0.84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505	6.0%	13,276	7.1%	2.86	1,402,596	7.4%	2.9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27	6.1%	1,531	5.8%	2.31	125,943	8.3%	3.3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2	2.7%	3,009	4.9%	1.96	465,442	8.8%	3.5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98	7.2%	5,493	6.3%	2.53	544,613	5.1%	2.07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1999년 이후 입지상계수의 변화를 보면, 계수가 2.0 이상으로 지역내 특화도가 높은 산업은 전통적인 음·식료품과 펄프·종이 산업과 더불어 목재·나무, 자동차, 비금속광물제품 등 5개 산업으로 나타남. 또한 화학제품, 섬유제품도 비교적 높은 특화도를 보임
- 그러나 이들 전복에 특화된 산업들은 자동차, 화학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산업에 해당하여 전복의 제조업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줌

<표 2-9> 전북 제조업종별 입지상(특화계수) 변화 추이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부가가치 기준	매우 높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음·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 광물제품
	비교적 높음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가구 기타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낮음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중사자수 기준	매우 높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음·식료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교적 높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합물 및 화학제품 가구 및 기타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낮음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주 : 매우 높음은 특화계수가 2.0 이상을, 비교적 높음은 1.0 이상 2.0 미만을, 낮음은 1.0 미만을 가리킴.

3) 지역의 대미 무역구조

- 전북의 수출은 54억 7천 달러로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1.7% 수준으로 GRDP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볼 때 미미한 수준
- 수입은 25억 4천 8백 달러로서 전국대비 0.8%를 차지함
- 전북의 3대 교역국가인 미국,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6년 미국은 3억 3,870만 달러의 흑자를, 중국은 1억 4,304만 달러의 흑자를, 일본은 7,382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표 2-10> 주요 국가별 전북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불)

연도	미국			중국			일본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2	219,106	219,863	- 757	315,183	348,572	-33,389	187,622	293,048	-105,426
2003	338,596	247,070	91,526	614,735	449,939	164,796	208,936	383,190	-174,254
2004	605,109	364,797	240,312	803,050	414,295	388,755	230,677	488,161	-257,484
2005	626,247	320,675	305,572	817,995	576,196	241,799	319,010	443,761	-124,751
2006	748,070	409,372	338,698	696,346	553,302	143,044	341,479	415,294	-73,8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06년 전북의 무역수지는 2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매년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국인 미국과의 교역은 전북 무역 규모 대비 수출 13.7%, 수입 16.1%를 차지하며 교역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3억 4천 달러 가까이 흑자를 기록함

<표 2-11> 전북지역 대미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천 불)

구분	2000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00-'0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미국(A)	782,326	270,550	748,070	409,372	-0.7%	7.1%
전세계(B)	2,881,057	1,501,319	5,470,985	2,547,563	11.3%	9.2%
A/B(%)	27.2%	18.0%	13.7%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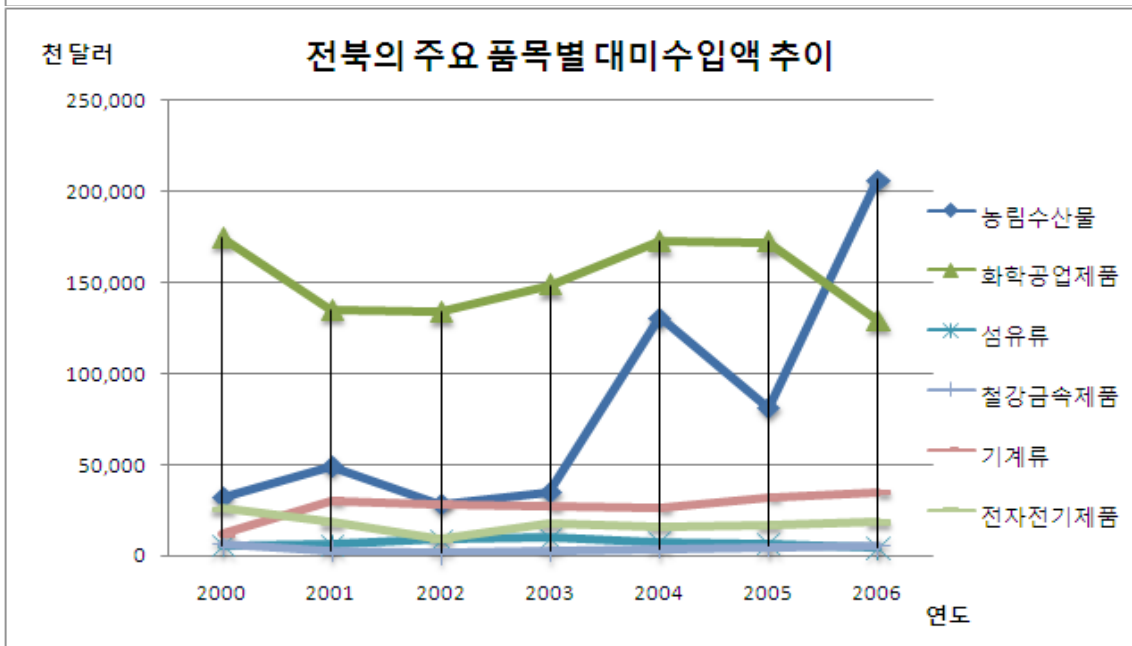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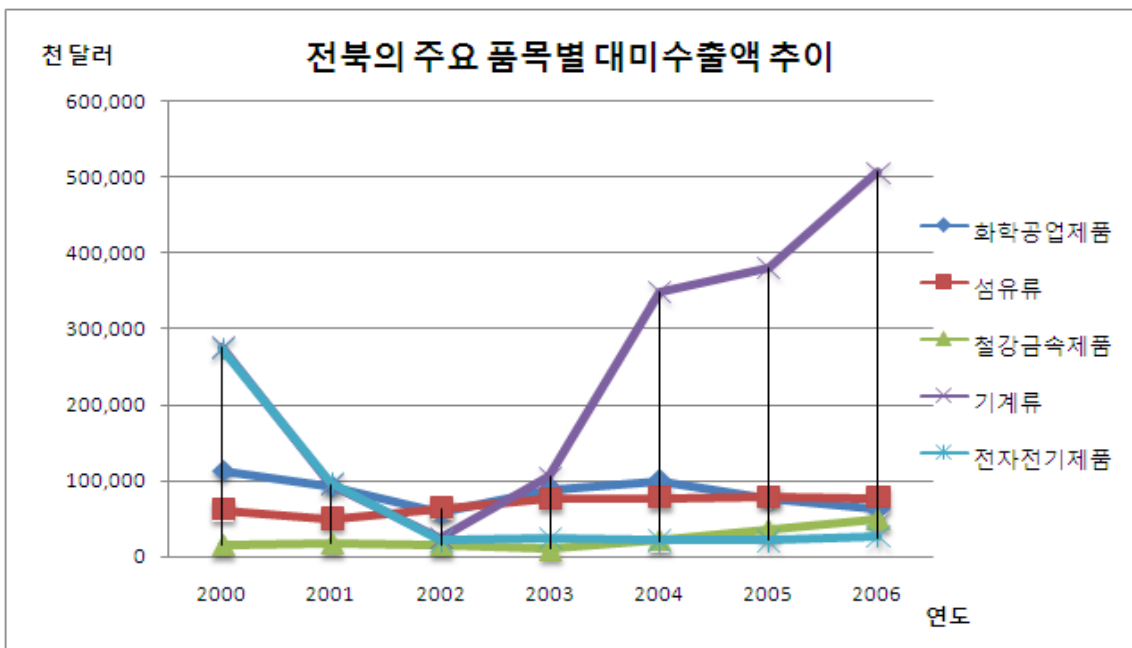
- 최근 5개년 동안의 수출입현황에서 미국은 수출입규모와 무역수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은 최근 수출입규모의 축소와 함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일본의 경우 수입 규모가 다소 축소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임
- 한편, 한미FTA 대상국이자 전북의 제1의 수출대상국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를 비롯하여 철강제품, 섬유원료,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제품 등 중화학제품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등의 수송기계는 GM대우 등 완성차업체의 수출증가로 인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5.1%를 차지하면서 향후 FTA이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의 경우 전체 품목에서 사료 등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12.8%), 기타 화학공업제품(6.2%) 등의 순으로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주요 수입품목인 농산물은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크게(168.8%) 나타나 향후 FTA에 의한 관세 혹은 비관세 형태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하여 농산물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2> 전북지역 대미 10대 수출입 품목(2006)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비중	순위	품목명	금액	비중
총수출		748,070		총수입		409,372	
1	자동차	455,350	60.9%	1	식물성물질	130,905	32.0%
2	인조섬유	48,502	6.5%	2	제지원료	51,157	12.5%
3	선재봉강및철근	46,359	6.2%	3	곡실류	30,617	7.5%
4	자동차부품	31,329	4.2%	4	기타농산물	29,231	7.1%
5	합성수지	16,933	2.3%	5	기타화학공업제품	25,490	6.2%
6	귀금속장식품	13,407	1.8%	6	원동기및펌프	21,486	5.2%
7	의류	12,446	1.7%	7	기타석유화학제품	16,941	4.1%
8	종이제품	11,588	1.5%	8	정밀화학원료	16,578	4.0%
9	기계요소	11,256	1.5%	9	목재류	9,465	2.3%
10	정밀화학원료	11,241	1.5%	10	합성수지	8,098	2.0%
합계		658,411	88.0%	합계		339,968	83.0%

주: 품목명 분류는 MPI 3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MTI 1단위로 본 품목별 전북의 대미수출액의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2002년 이후 기계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6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대미수출액을 주도하고 있음
- 한편, 수입품목의 추이에서는 농림수산물이 '04년과 '0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해 '06년 현재 그 전까지 주 수입품목이었던 화학공업제품류의 수입액을 넘어면서 제1의 수입품목으로 대두됨



3. 한미FTA와 전북지역경제

1)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 한미FTA 주요 분야의 협상결과는 전북지역경제 관점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위주의 상품무역분과, 섬유분과 및 농업 분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3-1> 상품무역분야 주요 타결내용 및 평가

분 야	타결안 주요내용	평 가
상품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시장접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디지털TV, 기계류 등 · 양측 관세 3년내철폐 94% 수준 · 美 물품취급수수료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00만불 부담 면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주력수출품목들의 세계 최대시장 진출여건 개선 · 양국간 교역원활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양허 제외 ·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유지 : 오렌지(수확기), 분유, 천연꿀, 감자, 대두 (HS10단위 15개) - 쇠고기: 15년 철폐 + 세이프가드 - 기타: TRQ, 계절관세, 세 번분리 · 농산물 세이프가드(SG)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민감성을 적절히 반영한 개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 유지, 10년이상 장기이행기간 설정, 농업 SG, TRQ, 계절관세 등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섬유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철폐 61% 확보 · 원사기준 예외 확보 · 원산지예외 쿼터(TPL) 근거 · 우회방지 세관협력 강화 · 섬유 세이프가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섬유업계의 대미시장 접근 개선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 즉시 철폐 (3,000cc 이하), 3년 (3,000cc이상) - 자동차 부품 : 즉시 철폐 - 타이어 : 5년 철폐 - 픽업트럭 : 10년 철폐 · 세제개편 및 표준현안 해결 ·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미진출여건 개선 · 미측 관심사항을 적정수준 반영 (3,000cc 이상 통상현안 감소)

자료: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발표자료, 『한미FTA의 산업영향 평가 및 선진화 전략』, 2007

■ 한미FTA 협상 주요내용

◎ 자동차

- 미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국내 세제·안전기준·

환경기준간 이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최종 합의 도출

- 표준 제도(안전기준, 환경기준) 변경의 영향은 미미하고 환경(배출가스기준)의 경우 제도 선진화의 효과 예상

○ 주요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

-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차시), 자동차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친환경차

○ 배기량 기준세제와 관련하여서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의 특소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10%→8%, 3년후 5%로 인하
-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 업계도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적절한 내수규모 유지 전망

차 종	경차 (800cc이하)	소형차 (800~1,000, 1,000~1,600)	중형차 (1,600~2,000)	대형차 (2,000초과)	
현 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단계축소	80원	140원	200원		

- 양국간 주요 통상 마찰의 원인이었던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문제를 상호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해결함으로써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을 제거, 우리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위한 무형의 기반 마련

◎ 농업

- 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품목 개방의 예외를 주장한 한국과 예외없는 개

방을 주장한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분야의 쌀을 제외한 협상이 타결 되었으며,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는 즉시철폐로 협상타결됨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의 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이 도입

<표 3-2>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 칩용 감자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사과, 배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9년	딸기
7년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2014.1.1 철폐	돼지고기
6년	옥수수유, 호두(탈각)
5년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3년	해조류
2년	아보카도, 레몬
즉시 철폐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현행관세 유지:** 수확기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 현행관세 유지
- **과일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동안에는 현행

- 관세를 유지하거나(오렌지) 관세를 17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 철폐, 나머지는 10년 철폐(사과는 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유지)
-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 **관세 장기 철폐:**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이상 15년), 인삼(18년), 배, 사과(이상 20년), 포도(17년) 등
- 농업분야의 협상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과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붕괴 억제

◎ **섬유**

- 섬유분야에서 한국의 섬유 전품목 관세철폐 및 원사기준 예외 요구와 미국의 우회수출 방지책 요구를 수용한 최종 합의 도출됨으로써 섬유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됨
- 양국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에 합의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기로 합의
 - 즉시철폐비율: 미국(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한국(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표 3-3> 양국 양허단계별 섬유 주요품목

	한국	미국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 → 직물 →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과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에 대해서는 원사 기준 예외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대미수출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
 - ※ 우리중소기업의 정보제공 수준을 당초 미국 요구보다 대폭 완화
-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 WTO 세이프가드보다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2) 한미FTA의 지역경제 파급경로

- 전북지역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무역분야의 협상결과에서 관세인하 및 시장확대를 통한 교역·수출확대,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환경 개선효과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이 긍정적으로 예상됨
- 반면, 농업을 중심으로한 취약 산업에서 생산량과 노동의 감소가 불가피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진행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이 크게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

◎ 자동차

- 주요 분야의 관세는 한국(8%)이 미국(2.5%)보다 높지만 상호보완적인 분업관계로 긍정적 효과 예상
 - 미국관세(2.5%)의 철폐는 한국기업에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트럭분야 관세(25%, 10년) 철폐로 신제품개발을 통한 신시장개척으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음
 - 수입측면에서는 절대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업체들은 완성차나 부품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한국을 생산 및 개발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 FTA는 이러한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 마련

◎ 섬유

-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대미 수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대미 섬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한편, 우리나라의 9.3% 수준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우리 대미 주요수입품은 우리측 생산이 없는 고기능 첨단제품에 한정되는 바, 오히려 우리 완제품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효과 예상

-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
 - 현재 의류분야는 단순생산후 납품하는 OEM 수출 위주이나 FTA를 계기로 독자 브랜드를 갖고 ODM 수출방식으로 전환 기대
 - ※ 제조업자개발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인 OEM과 구별
 - 원사, 직물, 섬유 완제품 등 산업 스트림간 협업관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기대
 -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 흐름의 원활화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기대
 - 고급소재, 패션의류 수출국인 이태리의 경우에도 강하게 수직계열화된 점이 섬유산업 선진국의 토대
 - 외국인투자유치로 고기능성 제품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력 향상
- 통관절차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업 부담이 감소하여, 물류측면의 대미 수출환경 개선 효과 기대
 - 패션제품의 경우 신속한 납품이 주요 경쟁력 요인
 - 현재에도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자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에 의해 기업정보, 거래 및 생산정보를 바이어를 통해 미국 세관당국에 제출

◎ 농업

- 농업분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이 소비시장에 들어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 증대와 지금까지의 보호주의 체제하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한 농업 분야의 산업 재편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거론
- 하지만, 국내의 높은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해 경쟁에서 뒤진 국내 농업분야 생산의 감소와 고용의 불안이 증대되고 농산물 교역의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농업분야의 축소는 식량안보, 홍수방지, 환경보존 등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인 다원적 기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제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확보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물품취급수수료 등)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국 연방 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가 확대
-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대일 의존도 완화 예상

4. 한미FTA의 전북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미 FTA체결이 지역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 거대한 농업 선진국인 미국과 한국간의 FTA는 축산물, 과일, 채소, 곡물 등 우리의 거의 모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쌀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낮으나 피해가 큰 다른 품목농가가 쌀 생산으로 전환되면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분야에서 전북 내 산업비중이 높은 자동차, 기계, 섬유 등의 산업에서 생산 및 수출의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이루어지나, 음식료품 업계에서는 미국산 원가와 품질의 우위에 있는 업체의 진출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전망이 예상됨
- 서비스업 측면에서 정확한 파급효과를 진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개략적으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생산과 고용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다수 중소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자생력이 감소할 전망

■ 전북 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체결 직후 다음의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파급영향에 관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전북의 파급영향을 분석함
- 분석에 포함된 품목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생산액 합계는 농업 총생산액 (35조원)의 91% 차지

<표 4-1> 분석대상품목

구분	품목
곡물	두류, 맥류, 기타 곡물
축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낙농품), 기타 축산
과일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과일
채소, 특작	고추, 마늘, 양파, 과채류, 인삼, 기타 채소·특작

- 한편, 전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리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이 34.8%로 가장 높으며, 생강(28.3%), 인삼류(20.5%), 밀 (18.5%) 등의 품목이 높은 비중을 점유함

<표 4-2> 전북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품 목	현행 관세		재배면적(ha/두수)			생산량(톤)		
	TRQ	초과분 (기본)	전국(E)	전북(F)	비율 (F/E)	전국(G)	전북(H)	비율 (H/G)
쌀	5.0		955,229	142,466	14.9	4,679,991	741,910	15.9
보리	30.0	513.0	33,024	10,767	32.6	128,390	44,655	34.8
밀	1.8		2,395	308	12.9	7,678	1,417	18.5
옥수수	1.8	328.0	15,176	556	3.7	73,470	1,735	2.4
감자	30.0	304.0	32,728	3,174	9.7	894,215	81,379	9.1
고구마	45.0		17,178	2,597	15.1	282,526	40,539	14.3
콩(두류)	27.0		117,552	8,095	6.9	198,757	13,736	6.9
고추	50.0	270.0	61,299	7,389	12.1	161,380	19,477	12.1
마늘	50.0	360.0	31,766	685	2.2	374,980	6,743	1.8
양파	50.0	135.0	16,737	736	4.4	1,023,331	37,742	3.7
생강	20.0	377.3	2,264	636	28.1	28,797	8,147	28.3
인삼류	20.0	222.8	14,153	2,768	19.6	14,561	2,984	20.5
사과	45.0	45.0	26,907	933	3.5	367,517	11,391	3.1
배	45.0	45.0	21,807	1,031	4.7	443,265	27,657	6.2
포도	45.0	45.0	22,057	1,235	5.6	381,436	21,069	5.5
복숭아	50.0	50.0	15,014	814	5.4	223,701	13,211	5.9
감	67.5	67.5	26,831	1,113	4.1	363,822	13,316	3.7
딸기	45.0	45.0	6,969	557	8.0	201,995	15,668	7.8
장미	8.0	27.0	751	53	7.1	678	43	6.3
카네이션	8.0	18.0	116	5	4.3	123	4	3.3
국화	8.0	18.0	797	44	5.5	560	26	4.6
밤	50.0	219.4		2,676		76,447	2,616	3.4
호도	45.0	45.0				868	111	12.8
대추	50.0	611.5				8,216	144	1.8
쇠고기	40.0	40.0	2,019,516	203,417	10.1	141,641	14,164	10.0
돼지고기	25.0	25.0	9,382,039	1,092,349	11.6	701,526	81,377	11.6
닭고기	20.0	20.0	119,164,091	16,367,828	13.7	300,718	41,198	13.7
유제품	40.0	176.0	464,056	35,634	7.5	48,171	3,472	7.2
치즈	36.0	36.0				59,763	3,647	6.1
꿀	20.0	243.0	2,098,762	247,338	11.8	23,820	2,787	11.7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한미FTA에 따른 전북의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04 억원 수준으로 추정
 - 일부 품목의 경우, 생산통계량 측정의 오류로 생산감소액에서 제외되어 다소 과소추정되었음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08억 원, 10년차에 820억 원, 15년차에 908억 원 감소 추정

<표 4-3> 전북의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액 추정

단위: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곡물	보리	4	1	3	8
	두류	5	1	4	9
	기타	5	2	5	7
	소계	13	3	13	24
채소/특작	마늘	1	0	1	1
	양파	2	1	2	3
	고추	4	1	3	7
	과채류	16	8	19	20
	인삼	8	7	8	9
	기타	4	3	4	4
	소계	33	19	36	44
과수	사과	11	5	9	20
	배	8	2	7	16
	포도	20	5	19	36
	감귤	19	10	23	24
	복숭아	8	3	9	12
	소계	67	25	67	107
축산	쇠고기	181	36	201	306
	돼지고기	177	102	212	217
	닭고기	97	41	113	136
	유제품	36	27	39	43
	소계	491	207	565	702
총 계		604	254	681	878

주: 과수와 축산 품목의 기타분류는 제외되어 다소 과소추정됨

- 쇠고기의 경우 전북 농축산물 중 생산감소액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행 40%의 관세율이 철폐된다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가격의 하락과 함께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 대체로 인한 결과임
- 또한 쇠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국내산 돼지고기와 대체재 관계를 더 이룰 것으로 보여 돼지고기의 생산 감소액도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남
- 한편, 전북의 주요 수산물의 생산감소액은 넙치가 연평균 281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수산물로 추정되며, 민어와 대구 순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됨

<표 4-4> 전북의 주요 수산물 생산 감소액 추정

단위: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민 어	35	34	35	36
넙 치	281	258	281	304
오 징 어	0	0	1	1
대 구	11	8	13	13

■ 전북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파급효과는 시장접근 확대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의 확대, 무역전환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장기적 관점의 산업구조 구조고도화 효과 등이 예상되며, 구조조정 가속화로 실업증가, 유망산업의 발전 저해 및 미국경제로 종속 등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됨
- 한·미 FTA의 영향을 주로 한·미간 해당 업종의 분업구조와 수출입 특화, 비교우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연구원(2006)분석에 따르면, 수출이 수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은 섬유, 자동차,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으로 이들 업종은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의 특징과 함께 특정품목의 대미수출에 있어 비교우위 품목이라는 점임
-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음식료, 정밀화학, 일반기계 등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음식료와 같이 경쟁적 분업구조에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비교열위인 업종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생산위축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한·미 FTA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교역관계에서의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목재가구, 제지인쇄, 석유화학, 철강, 가전, 전자부품, 항공기, 조선, 정밀기기 등으로 철강, 전자부품의 경우처럼 무관세업종이거나 교역규모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임

<표 4-5> 한미FTA의 제조업 주요 업종별 영향

업종	분업구조	수출특화 분야	수입특화 분야	전체 경쟁력	FTA의 영향	비고
음식료	경쟁적	-	-	비교열위	①부정적	- 전체적으로 경쟁력 열위 - 미국은 저렴한 자국산 원료(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가격 및 품질우위
목재 가구	보완적	중저가 가구 (비교우위)	목재 원자재 (비교열위)	비교열위	③중립적	- 한국의 대미 수출품인 가구의 미국 관세율은 0% - 한국의 대미 수입품인 목재 원자재의 한국 관세율은 2%

업종	분업구조	수출특화 분야	수입특화 분야	전체 경쟁력	FTA의 영향	비고
섬유	보완적	중저가 범용품 (비교우위)	산업용 섬유, 섬유소재, 고가 의류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⑤긍정적	- 대미 수입품은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가제품 - 산업전반의 경쟁력수준은 비교열위지만,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범용품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해 대미수출에 긍정적
석유화학	보완적	합성수지 등 범용 유도품 (비교우위)	고부가가치제품, 중간원료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③중립적	- 범용품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적자 - 무역은 수급갭(범용품), 기술력(고부가가치제품)에 의해 결정
정밀화학	보완적	범용품 (비교우위)	중간체, 원재 등 핵심원료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②다소 부정적	-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도 높아
금속제품	보완적	저부가가치·저급품 (비교우위)	고부가가치·고급품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③중립적	- 무역규모 미미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금속제품의 비중은 0.5-0.8%)
일반기계	보완적	범용기계 장비 (비교우위)	반도체장비, 가공공작기계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②다소 부정적	- 수출창출 가능분야: 가공공작기계, 볼 베어링 등 미국의 관세율(8%)이 높은 중소기업형 분야 - 수입확대 분야: 반도체장비중 8%의 관세율 적용 분야,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터빈, 압축기 등
전기기계	보완적	범용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 (비교우위)	대용량 발전기, 초정밀배전제어장치, 원자로 등 고기술 분야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④다소 긍정적	- 수출증대효과가 수입증대 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
가전	보완적	영상기기 (비교우위)	음향·생활가전 (비교우위)	비교 우위	③중립적	- 현지 생산으로 수출은 미미한 증가 - 피해 예상품목도 미미한 수준
통신기기	보완적	휴대폰 (비교우위)	통신장비 및 핵심부품 (비교열위)	비교 우위	④다소 긍정적	- 관세효과만 고려시 중립적 -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통신 기술 및 표준협상시 긍정적 효과 기대
자동차	보완적	중소형자동차, 부품 (비교우위)	대형 고급차 (비교열위)	비교 우위	④다소 긍정적	- 한국의 높은 수출특화도(0.907)
조선	보완적	상선 (비교우위)	레저용 보트 (비교열위)	비교 우위	③중립적	- 상선은 무관세 - Inflatable은 수출증가 가능 - 레저용 보트는 한국 개발 초기단계
정밀기기	보완적	로우엔드형 제품/미들엔드형 제품 (비교우위)	하이엔드형 제품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③중립적	- 통신용 계측기 등 일부 경쟁 품목에서는 FTA로 인한 경쟁과 협력의 가능성이 공존

자료: 산업연구원(2006)

○ 협상대상 품목 수 9,730개, 3년내 관세 94% 철폐로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

상결과를 ①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과,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생산효과를 도출한 중앙정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대미 수출입과 전북지역 내 생산증가액을 추산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및 기계 산업과 섬유산업에서 28백 만달러와 8백만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

<표 4-6> 전북 제조업 대미 수출입 영향

단위: 백만달러

주요 업종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자동차/기계	28	1	27
섬유	8	0	7
전기전자	0	0	0
철강	0	0	0
화학	1	3	(2)
생활용품	0	0	(0)

-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110억 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
 -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1,791억 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화학(134억 원), 섬유(94억 원)순으로 예상

<표 4-7> 전북 제조업 부문 생산 증가액

단위: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791	1,408	1,983	1,983
전기전자	58	28	73	73
섬유	94	71	103	107
화학	134	50	177	174
일반기계	19	5	25	25
철강	10	5	13	13
생활용품	5	3	5	5
제조업 전체	2,110	1,569	2,379	2,381

(1) 자동차 산업

- 전북 자동차 산업은 전국 대비 5.9%(06년 부가가치 기준)이며,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 이르는 전북 전략산업 중 하나로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임
-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8% 폐지,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2.5%에 대하여 배기량 3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 30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내 철폐, 상용차 관세 25% 10년동안 매년 균등 완화 이후 철폐, 국내 특별소비세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해 3년 내 현행 10%에서 5%로 인하, 배기량별 보유세제 현 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 등임
- 양국은 미국의 수입관세에 대해 승용차 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2008년 FTA발효와 함께 수입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3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며, 관세율이 25%에 달하고 있는 상용차 부문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여 완전히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함
- 대미 수출증가 효과
 - GM대우의 승용차 부문의 경우 2008년부터 관세 2.5% 폐지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발생할 전망이고, 3년 이후부터는 현재 수출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2.5%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트럭의 경우에도 미국이 25%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인하여 시장진입을 위한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향후 한국업체는 320만 대 규모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국내 상용차 제조업체 3사 중 2개사가 소재한 전북의 타타대우상용차와 현대상용차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될 것임
 -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진출한 한국의 완성차 업체와 미국 자동차업체의 Global Sourcing이 증가하는 가운데 FTA체결 이후 국산부품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되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평균 3%의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철폐로 국내 부품업체들이 미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대미 수입증가 효과

- 인하폭 측면에서 한국은 8%를, 미국은 2.5%관세를 인하하여 한국 수입관세 인하폭이 더 크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폭도 미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차가 한국시장에서 큰폭으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관세인하뿐 아니라 취득단계에서 특소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이 동반인하되어 미국 자동차회사 Big3(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는 국내에서 7.4% 가격경쟁력 향상이 예상
- 미국 Big3 외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미국산 일본차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하고라도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상당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
- 우수한 연비와 품질 등 세계 최고의 제품 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업체들의 경우 한국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차종이 많고, 대부분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고 있어 언제라도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완성차 업체를 위협할 수 있음

(2) 섬유산업

- 자유무역협정 이후 수출위주 섬유류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내수 위주의 패션의류산업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전북 섬유 산업은 전국 대비 2.7%(06년 종사자수 기준)이며,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이르는 제조업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체가 영세한 수준으로 자체적인 FTA대응전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관세 철폐효과
 - 한국 섬유제품은 여전히 중저가 제품에 치중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나 중국산 제품과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대미 수출은 2001년 32억 달러에서 2005년 23억 달러로 감소, 미국 시장 점유율도 1995년에 4.36% 였으나, 2005년에는 3.99% 로 감소하였음
 - FTA 체결로 인해 기존의 상황의 전환되기가 쉽지 않으나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와 쿼터제 폐지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은 다소 상쇄

될 전망이고, 원산지 규정의 완화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

- 미국의 섬유류 평균관세율은 8.9%이나 15% 이상의 고관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전체 섬유류의 13%를 차지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던 상황에서 관세철폐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미FTA 경제적 효과

- 국책연구기관은 2005년 대미 섬유류 수출액인 23억 2,700만 달러를 기준으로 단순 관세 철폐시 수출증대효과는 약 2억 달러(무역연구소), Yarn Forward 완화시 대미 섬유수출 비중이 높아져 약 4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고, 2005년 국내 섬유수출의 대미 수출비중이 17%에서 약 20%까지 상향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대미 수입에 대한 영향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관세율도 의류 등 완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경사 관세 구조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대미 수입은 섬유사와 직물 등 섬유 소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미 관세 철폐로 인한 미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체결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누리하고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국내투자가 활성화될 것이 기대되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해외투자가 몰리던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고,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예상
-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집중이 국내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내 생산 및 수출업체와 미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로 인해 섬유산업의 고용 감소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급속한 추격과 No 쿼터제로의 무역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급감하는 상황속의 한국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구조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국내 섬유업계가 지향하고 있는 섬유산업 고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 다만, 원산지 규정의 수혜 여부, 제품 수출 비중, 주요 제품 형태에 따라 기업별로 FTA로 인한 효과는 다를 수 있음. 전반적으로 수출비중이 높고

관세 폐지의 효과가 높은 부문은 니트류를 비롯한 직물 및 기초 의류제품이고 고부가가치인 패션의류의 경우는 내수 비중이 높고, FTA로 인한 관세 폐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3) 전기전자산업²⁾

- 전북 전기전자 산업은 전국 대비 0.4%(06년 부가가치 기준)이며,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는 제조업으로서 지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임
- 중전기기산업
 -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진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범용 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의 경우 수출 증가 예상
 - 경쟁 치열 양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취약한 대용량 발전기, 초정밀 배정제어장치, 원자로 등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발전설비의 핵심기자재인 터빈발전기의 설계기술은 GE(미국), Westing-house(미국), Alstom(프랑스), Siemens(독일) 등 소수업체만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의 전통적인 중전기기보다는 정보화된 전력기기 또는 디지털 전기기계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이들 분야의 기술협력 가능성
 - 우리나라 대용량 발전기, 초정밀 배전 및 제어장치 및 원자로의 경우 기술협력 또는 판매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됨
- 전자산업
 - 디지털TV 등 국내 생산제품의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되나, 주요 기업들은 현재 멕시코 현지공장체제 구축 등 해외생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므로 FTA 체결로 인한 수출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수출주력 제품은 무관세로 효과 미미
 - 국내제품의 경우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관세인하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전망

2) 전기공업협회와 전자산업진흥회의 자료를 요약 정리함

- 전자의료기기 및 계측기 등 기술력이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은 일부 피해 예상

(4) 기계산업³⁾

- 전북 기계 산업은 전국 대비 1.2%(06년 부가가치 기준)이며,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이르는 제조업으로서 지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나, 지역 성장동력에 해당하는 부품·소재산업에 속하는 산업으로 FTA체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적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은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005년 기준 18.4%(41억 달러), 수입비중이 20.6%(44억 달러)이며, 일반기계산업의 구매특성상 양국의 관세가 철폐 되더라도 교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일반기계산업의 구매는 가격보다는 기술·품질, 납기 및 A/S가 중요
- 수출증가 효과는 미국의 관세율이 무관세 또는 1~2% 수준(평균관세율 : 1.7%)이므로 관세 철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관세 인하효과는 크지 않지만,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시장분위가 긍정적으로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입증가 효과는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77% 이상이 8~13%(평균관세율 : 6.4%)이지만, 범용제품은 이미 가격·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관세 인하 효과가 적지만, 첨단기계류 및 부품은 관세 인하효과로 증가 예상
 - 첨단기계류 및 부품(전자부품장착기, 수직형머시닝센터, 액체펌프, 베어링, 밸브 등)은 기술·품질 면에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수입관세가 철폐 될 경우 미국 제품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출부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미국이 이미 관세가 낮아 관세 철폐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부문은 범용제품은 이미 가격·품질경쟁력을 확보되어 관세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제조용기계, 공작기계, 밸브 등의 첨단제품은 관세 철폐 효과로 증가 예상
 - 건설광산기계는 실행관세율이 이미 무관세인 관계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임
 - 공작기계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효과는 크

3) 기계산업진흥회의 자료 인용

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은 범용제품에세는 이미 가격·품질경쟁력이 확보되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시닝센터, NC기어절삭기 등 첨단제품이 증가할 전망

- 농업용기계는 우리나라의 주력기종인 소형트랙터가 양국이 이미 무관세이지만, 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은 국내수요기종과 미국의 생산제품이 달라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형은 국내기업은 범용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대미 수입품의 대부분인 정밀·특수 금형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세의 철폐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임
- 베어링은 FTA 체결로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베어링이 가격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게 되어 국내 베어링 산업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대미 수출확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제조장비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출 증가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전자부품장착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 예상

(5) 철강산업

- 전북 철강 산업은 전국 대비 1.2%(06년 부가가치 기준)이며,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이르는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으로서 지역내 산업 비중이 작은 편임
- 국내 철강재 수출비중은 중국 18.3%, 일본 13.8%, 미국 12.3%으로 대중국 수출이 높아지는 추이이며, 전형적인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철강산업의 경우 FTA체결로 인한 수출증대효과가 다소 기대됨

(6) 화학산업

- 전북 석유화학 관련 산업은 전국 대비 3.7%(06년 부가가치 기준)이며,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에 이르는 제조업으로서 지역내 생산 및 부가가치가 큰 업종에 속함

가. 석유화학부문4)

○ 관세인하 효과

△ 수출측면

- 석유화학제품은 생산기술이 범용화되어 제품의 품질이 비슷하고, 수급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국제상품으로 가격이 국제경쟁력의 관건이기 때문에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석유화학은 산업특성상 국내 전방산업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내수지향적 성격이 강하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
- 또한 미국과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기 FTA를 체결한 인접 경쟁국 등과 비교시 운송기간 및 운송비 등에서 20~30%의 추가 부담이 발생, 수출 경쟁에서 불리
- 특히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의 경우 우수한 투자여건으로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이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동중이며, 생산의 절반을 수출하는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출국

△ 수입 측면

- 수입은 우리나라 관세 폐지로 인한 수입제품의 경쟁력 증가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입이 증가,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①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관세(합성수지 기준 6.5%) 폐지에 따른 가격인하 영향이 높은 해상운임료를 보전키 어려움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움
- 다만 특화 그레이트 제품(2,000달러/톤 이상), 특화 제품 등 해상운임료를 보전할 수 있는 제품은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② 석유화학 Specialty 제품, 다운스트림 정밀화학제품, 기초화학소재제품의 입지축소

4) 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 자료를 인용함

- 고부가가치제품(Specialty), 정밀화학제품 및 기초화학소재 제품 중 다수의 분야에서 아직 한국제품은 기초 및 생산기술, 규모 측면에서 미국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열위에 있음
-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Specialty 제품이 미국기업에 개방될 경우,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 위축과 개발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③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제품의 내수기반 약화

-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고급기능성 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수요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축소되어 해당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내수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
-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충분한 기술개발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범용제품분야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향후 가격경쟁력 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동 및 동남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도 초래될 우려

나. 정밀화학산업⁵⁾

○ 수출 영향

- 미국의 정밀화학제품 관세율은 우리나라(평균 6.87%) 관세율 보다 낮은 평균 2.64% 수준으로 일부 정밀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자국 생산이 가능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6.5%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 제품의 수출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의약, 화장품·향료, 접착제 등의 경우 관세가 없거나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농약은 수출 규모가 미미하여 관세가 폐지되더라도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정밀화학분야에서는 염·안료, 도료·잉크, 계면활성제, 기타 화학제품 등에서 소폭의 수출 신장 기대

5) 정밀화학산업은 전자·정보, 기계, 자동차, 섬유, 의약, 환경·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제품을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다품종이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 특수기능을 갖는 기술집약적 산업

- 기능성 화학소재 : 전자·정보용 소재, 염·안료, 도료·잉크, 촉매, 접착제,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등
- 생리활성 제품 : 의약, 농약, 화장품·향료 등

- 다만, 국내 성장 잠재력이 크고 미국 내수시장 규모도 막대한 의약, 화장품·향료, 염·안료, 도료·잉크 등의 경우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신장 예상
- 그러나, 정밀화학제품의 경우 관세장벽보다는 환경규제 및 원산지규정 증명 등에서 애로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내 화학제품 수출을 위한 안정성 평가 상호 인정, 등록정보 보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

○ 수입 영향

- 정밀화학제품은 가격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최종 완제품이 아닌 연관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제품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및 관련제품의 고급화 등에 영향이 커, 수입이 증가 예상
- 현재 미국 수입비중이 높은 염료, 안료 및 사진용 화합물 등은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규모가 큰 의약 및 화장품 분야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7) 음식료품

- 전북 음식료품제조업은 전국 대비 7.4%(06년 부가가치 기준)이며,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에 이르는 업종으로서 지역내 사업체비중, 종사자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이 큰 편임
- 음식료품(주로 가공식품)은 FTA체결로 관세 철폐로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 국내 가공식품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정적 효과와 국내 가공식품업체의 수입 원재료 조달가격 하락의 긍정적 효과 동시 예상
- 부정적 측면: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떨어져 국내 가공식품업체 일부 피해 예상 - 유가공제품, 육가공제품, 빙과류, 초코렛 등
 - 한국기업은 미국과 경쟁에 있어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 기술면에서는 대등한 수준이나, 원재료 조달,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포장 기술,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

- 품목별로는 유가공품과 소시지와 같은 육류에서 나오는 제품은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70~80% 수준으로 핵심기술 부족과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과류(초콜렛, 스낵 등)는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수입 비중이 높음

○ 긍정적 측면: 수입 농산물 증가하여 원가 경쟁력 향상

- 주 원료인 농산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원가 경쟁력 향상

<표 4-8> 한미FTA가 국내 가공식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구분	한미FTA의 영향	내 용
유가공품	부정적	제품경쟁력 약하여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 치열해질 전망, 국내업체의 마케팅 비용 증가
육가공품	중립적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 치열해질 전망, 원재료수입 증가로 국내업체 원가 하락 가능
제과류	중립적	스낵에서는 강점, 초콜렛에서는 부정적
조미식품	긍정적	원료 가격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 상승
청량음료	긍정적	원료 가격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 상승
종합	부정+긍정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 가열, 마케팅 비용 증가 전망, 하지만 원재료조달 비용 감소 가능

■ 전북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전북의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14조 4,441억원으로 전국대비 2.9%를 점유하며 인구비중인 3.8%에 못 미치는 수준임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과 교육서비스업 분야는 전국대비 4.6~4.7%의 부가가치비중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업종이고,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전국대비 1.9%를 점유하면서 비교열위에 놓여 있는 업종임
- 전북 서비스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기준 건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종은 전북 내 서비스업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최근 10~20년 사이 크게 성장한 업종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표 4-9> 전북의 서비스 산업 현황

	총부가가치 (당해년가격)			종사자수			사업체수	
	백만원	전국비중	입지상	명	전국비중	입지상	개소	전국비중
서비스업 전체	14,444,130	2.9%		393,412	3.4%		109,108	3.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425,398	2.5%	0.84	2,675	4.0%	1.19	114	7.4%
건설업	2,412,415	3.6%	1.22	24,517	3.1%	0.93	3,345	3.7%
도소매업	1,073,987	2.1%	0.72	81,728	3.3%	0.99	34,289	4.0%
숙박및음식점업	525,472	2.7%	0.93	55,490	3.3%	0.97	21,874	3.5%
운수업	741,568	2.3%	0.79	26,867	3.0%	0.90	11,801	3.5%
통신업	491,302	2.8%	0.95	5,994	4.3%	1.28	508	5.4%
금융보험업	1,429,416	2.4%	0.81	20,610	3.5%	1.03	1,392	4.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753,995	1.9%	0.64	24,186	1.6%	0.49	5,028	2.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2,193,506	4.7%	1.61	27,014	5.0%	1.48	906	7.2%
교육서비스업	1,911,939	4.6%	1.56	51,715	4.3%	1.28	5,909	4.6%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66,643	3.8%	1.32	26,871	4.1%	1.23	3,160	4.2%
기타서비스업	718,489	2.6%	0.91	45,745	3.8%	1.13	20,782	4.3%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당해년도 가격기준

<표 4-10> 전북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변화추이

	1985년			1995년			2005년		
	백만원	전북비중	입지상	백만원	전북비중	입지상	백만원	전북비중	입지상
서비스업 전체	3,886,913	100.0%		9,565,370	100.0%		12,188,923	100.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1,284	1.3%	0.53	173,966	1.8%	0.59	414,039	3.4%	0.75
건설업	414,217	10.7%	0.81	1,944,316	20.3%	1.28	1,908,429	15.7%	1.23
도소매업	263,578	6.8%	0.53	852,667	8.9%	0.77	918,224	7.5%	0.71
숙박및음식점업	265,559	6.8%	1.62	411,797	4.3%	0.93	486,304	4.0%	1.00
운수업	261,170	6.7%	0.82	528,645	5.5%	0.80	705,682	5.8%	0.84
통신업	23,668	0.6%	0.78	178,422	1.9%	0.85	642,701	5.3%	0.98
금융보험업	112,858	2.9%	0.50	666,237	7.0%	0.69	1,126,422	9.2%	0.82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525,584	13.5%	0.81	1,319,398	13.8%	0.70	1,631,785	13.4%	0.68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746,330	19.2%	1.36	1,181,708	12.4%	1.49	1,719,763	14.1%	1.66
교육서비스업	805,784	20.7%	1.64	1,247,367	13.0%	1.51	1,479,135	12.1%	1.5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49,358	6.4%	1.49	505,942	5.3%	1.49	523,456	4.3%	1.37
기타서비스업	167,523	4.3%	0.89	554,905	5.8%	1.06	632,983	5.2%	0.93

자료: 통계청(KOSIS), 기준년도(2000년) 가격기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적효과 분석결과를 기초로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측면에서 종사자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모형에 따르면, 전북 제조업의 생산 측면에서 증가액은 609억 원~1조 63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고용 측면에서 증가 인원규모는 1,700명~14,79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표 4-11> 전북 서비스부문 경제적 효과

구 분	CGE 정태모형 (KIEP)	CGE 자본축적모형 (KIEP)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생 산	1.95% (2,726억 원)	3.24% (4,611억 원)	7.1% (1조 63억 원)
고 용	1.52% (5,814명)	2.57% (9,826명)	3.9% (14,790명)

- 하지만, 방송, 통신, 금융, 법률,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업의 협상 내용의 논

의 수준이 대부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서비스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의 본사가 위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 오히려, 수입농산물 등의 가격인하효과로 물류의 중심이 더욱 대기업 위주의 유통망이 견고해지는 현상이 예상되며, 이는 지역 재래시장이나 영세 유통업자 등의 몰락을 예고할 수 있음

2) 한미 FTA체결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1차 산업구조의 변화

- 1차산업의 산업역량이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이
 -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인력의 산업구조적인 개편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되 1차산업 자체의 총부가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1차산업 영위 사업체나 종사자의 2, 3차산업으로 이탈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집행보다는 1차산업 자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
- 농업부문의 기업화 진행이 가속화
 - 미국의 기업농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작물의 차별화도 필요하지만, 규모면에서 일정수준의 크기를 갖춘 기업농들이 자생적 또는 정책적으로 설립 및 육성되어질 전망
 - 영세 영농업자들의 합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및 법률적인 지원 등 새로운 농업정책이 필요
-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6차산업 형태의 산업구조로 변모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장으로 기존의 1차산업의 경계가 2차 및 3차 산업의 범위와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이들 경계를 넘어 융합된 형태의 6차 산업으로 산업구조로 변화될 전망

■ 거시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 한·미 FTA는 경제주체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폭의 파급효과 기대
 -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 ② 국내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

- 기업 및 가계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의 선택 폭(다양성) 확대, 서비스 質의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

5. 한미FTA와 전북지역의 과제

1) 한미FTA체결과 지역경제 발전방향

■ 유망 수출위주 제조업 육성

- 그동안 열악한 인프라와 혁신동력 창출에 미미하였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기계부품 관련 산업을 한미FTA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삼아 수출 위주의 육성정책 전개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고도화로 수출 위주의 제조업체 육성
 - 저부가형 부품소재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전북의 경우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등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
 - 독자적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수준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 상용차, 자동차 및 기계부품, 농기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 마련과 중국 내 자동차생산업체를 위한 중견 부품소재 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를 활용한 관련 기업의 적극적 유치
- 부품소재 등 유망 중소기업 육성
 -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인력공급 및 양성 지원,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hedge) 등의 수출 관련 경영지원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모색
- 지역내의 수출 효과가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및 수출 적극 장려
 - 섬유산업 관련 기반 구축과 지역 내 영세한 섬유업체의 기술개발, 해외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등의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지역내 개발 중인 닥나무 등 천연소재를 이용한 섬유제품 개발과 이를 위한 섬유산업특화단지(LOHAS 프로젝트) 조성으로 섬유산업의 고도화 추진
- 한미간 기술협력 도모를 위한 정책 마련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2차 및 3차 산업과 연계 가능하도록 구조조정

지원

-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2차 가공산업 및 3차 산업 연계 발전방안 수립
- 생물산업과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지역 전략산업인 생물산업과 대부분 지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수산업 품질고급화, 식품안전성 확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 수입품과의 차별성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수립
 -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역 및 산학연간 네트워크, 마케팅 및 제반 기업지원 컨설팅 등으로 세계적인 지역브랜드 창출 모색
- 피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마련
 - 구조적 실업 발생으로 인한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보육개발 지원 등 FTA로 인한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경제활성화

- 한미 FTA로 외국인 직접투자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한 관련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활성화로 전북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함께 산업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의 기회로 활용
 - 이를 위한 적극적 홍보전략 마련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공장부지의 원활한 공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방안 마련
- 한미 FTA에 따라 경쟁우위가 있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새만금 지역과 연계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과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지기 위한 투자유치 마련
 - FTA로 인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그동안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되었던 전북 지역에 대한 SOC지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FDI,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 마련

2) 한미FTA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농업 분야

■ 농가 피해 보전대책 수립

- 피해 농가소득 보전 등 농가소득 안전망 대책 수립
- 농업피해조사 전담기구의 신설과 품목별, 농가별 피해 규모에 대한 세밀한 조사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함
 - 포도, 복숭아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피해가 예상되었던 한·칠레 FTA와는 달리 거대한 농업 선진국인 미국과 한국간의 FTA는 축산물, 과일, 채소, 곡물 등 우리의 거의 모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농업부문의 피해 산정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피해조사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지불금 지원과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
 - 쌀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체생산 등으로 인한 쌀 가격하락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 마련 필요
 - 농가등록제 조속 실시로 보상제도 체계화 : 농가소득, 농업인 연령, 농사규모 등의 조사 및 등록 후 농가 유형별 분류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
 - 실질적인 농가소득 피해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보상과 사후보상으로 구분하는 정책 병행
- 지역별 농가소득별 지원 차등화
 - FTA관련 중앙정부의 농업 피해보전금액 보조시 지역내 농업의 산업비중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책 마련 유도
 - 피해 보상과 함께 소득하위 농가 및 영세농, 고령농업인은 보상기간을 통해 구조조정 실시
- 전업교육 및 사회보장차원의 지원대책 확대
 -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는 농업인의 탈농을 유도할 것이지만,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탈농가의 가족은 도시빈민화 되기 쉬우며 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임
 - 노동가능 인력에 대해서는 전업교육 실시와 직업알선 등으로 구제하고, 고령농업인은 사회복지보장의 차원에서 해결모색

■ 중장기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쌀 편중 농업에서 작목의 다양화 유도
 - 전북의 쌀 편중 농업은 쌀 작황과 가격에 따라 농업이 심하게 영향을 받아 일시적 농가 붕괴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업의 쌀 의존도를 완화하는 작목 다양화 정책이 필요
 - WTO/DDA 협상에서도 쌀은 2014년 이후 관세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북지역에서 농가소득원을 쌀 중심에서 다른 작목으로 보다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북은 향후 조성될 새만금지구의 영농단지에 대체작목 재배 필요, 특히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작물 생산을 통해 농업의 의미를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명.에너지 전략산업으로 육성
- 품질차별화와 마케팅 전략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 수입농산물에 대항하기 위해 품질고급화와 마케팅 전략 등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
 -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국산쌀과 외국쌀의 가격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가격(非價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짐. 그러므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후 저장, 가공 단계까지의 품질관리와 상표, 서비스, 광고 등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과제임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장려

■ 농업생산과 식품산업 등의 연계강화

- 식품산업 등을 육성하여 농업생산부문과 적극 연계시키는 방안
 - 식품원료를 공급하는 농업부문과 식품제조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가공 시설 및 장비를 근대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학.관.연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농업과 식품업 연계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 식품의 안전성, 건강 기능성, 웰빙 식품, 전통발효식품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상품의 부가가치화 추진

■ 농산물 틈새시장 개발과 수출 확대

- 한-미 FTA 등의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 및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농산물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niche market)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영농규모가 확대가 힘든 중소농들에게는 틈새시장 공략이 매우 중요
 -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맞춰 라면, 과자류, 국수류, 인삼제품, 장류, 차류, 김치 등 품목에 대한 포장개선, 마케팅 지원, 홍보 등을 실시
 - 깻잎, 단감, 호박 등 틈새품목 수출판로개발 필요
 -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계절 특수 수요나 한국 식당 및 식품점을 타겟으로한 틈새 수출마케팅 모색
- 목표시장 내지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기에 앞서 생산, 기술, 판매, 입지여건 등 현재의 경쟁력 수준을 엄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경영비 절감, 품질관리, 마케팅 등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특히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와 기술개발, 경영위험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함.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상품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쌀 수출 판로 모색
 - 쌀 공급과잉과 고품질쌀 생산 증가로 일본, 미국 등 쌀 수출 전략 필요
 - 이에 대해 쌀 수출 전담 전문 영농법인 설립 검토
 - 미국의 FDA(식품의약국)를 비롯한 각 국의 식품 관련 승인당국 허가 지원, 특허신청, 정보수집 및 업체 동향분석 등 맞춤형 마케팅지원이 가능한 조직 구성

■ 농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쌀을 비롯한 중요한 품목의 생산, 유통 등에서 공동대응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므로 공동마케팅 조직 등 조직화된 힘을 모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농업혁신을 이끌어갈 지역농업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이 해결하기 힘든 전략 품목 개발, 초기 시설투자, 생산자조직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2) 섬유산업 분야

- 천연섬유 중심의 로하스(LOHAS)프로젝트 추진 체계화
 - 기능성 섬유소재로 활용할 닥나무를 재배해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 전북 섬유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체계로 재구축할 로하스(LOHAS)프로젝트 추진 구체화
 - 천연 향균 섬유소재 개발 및 환경 친화형 섬유가공제 개발 사업 등 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조성될 로하스 섬유산업특화단지에 대한 경제적 실현 방안 모색
- 지역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가격경쟁 이외에 기술경쟁력의 확보와 전방산업 부문의 육성전략 수립
 - 한미간 산업기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섬유류에 대한 FDI유치 및 전략적 제휴 적극 추진
 -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세분화전략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 시장동향 모니터링, 국제전시회 참여 활성화, 국내 천연섬유 전시회 개최 등공격적 수출 마케팅 전략 강화
- 지역 섬유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 원산지기준(yarn-forward)적용시 한미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지역 업체의 현지 연락체계 구축이 시급
 - 지역 내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검토
 - 유망기업 육성 및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사업 전환 등 지역 섬유산업 구조조정 촉진
 - 니트산업연구원을 활용한 전략적 R&D, 디자인 개발, 네트워크 등 산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방안 모색
 - 공동연구개발자금 등 지역 섬유업체 간 협력지원

(3) 자동차 및 기계 산업 분야

- 자동차 전진기지 확립
 - 전북에 위치한 완성차 3사는 총 85만평 부지에 연간 44만 5천대(국내 생산능력의 10%)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

- GM대우의 디젤엔진 공장 신축, 현대상용차의 14만대 생산설비 확충, 타타 대우상용차의 중형트럭 1만대 생산 증대 등의 투자계획 발표
- 관련 기업 및 R&D 기관의 유치와 함께 물류체계, 미니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추진
- 자동차·기계 부품소재 산업 적극 육성
 - Global Sourcing 증가와 함께 평균 3%의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철폐로 FTA체결 이후 국내 자동차부품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되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전략적 육성이 강하게 요구됨
 - 완성차 3사가 입주해 있는 전북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수요현황은 매우 양호하나, 자동차부품산업은 인근지역에 대한 납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수요도 충족하지 못 할 정도로 미약하여 향후 국제적 수요에 대응한 해당 산업의 육성이 절실함
 -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체 출하액의 전국 비중은 7.79%, 자동차 부품 경우는 3.56%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낮음
 -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구축을 위한 혁신기반과 혁신지원기관 등을 활용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 공작기계와 농업용기계 산업 혁신기반 구축
 - 대규모 기계화 장비 수요지역에 해당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FTA이후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 공작기계 및 농업용기계 수출 지원 및 육성
 - 경남권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북의 소재산업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강력히 요구됨

(4) 식품산업 분야

- 차별화된 식품산업 육성 전략 필요
 - FTA체결로 관세 철폐로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 국내 가공식품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정적 효과와 국내 가공식품업체의 수입 원재료 조달가격 하락의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예상되는 전북 식품산업의 경우 차별화된 식품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
 - 발표식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분야, 임상실험 및 대사물질연구 기반 생물분

- 야, 한의약자원을 바탕으로 한 한방분야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식품산업 적극 육성 및 미국시장 겨냥 수출산업 지원대책 수립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생물산업진흥원, 지역특화연구소(생물대사물질, 장류, 치즈연구소 등) 등 지역혁신기반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와 차별화된 상품화 전략 추진
- 전국비중 35%를 차지하는 지역 내 식품첨가물의 경우 FTA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원료 산지에서 최종재까지 집적화 검토
- 식품산업 클러스터 적극 육성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세계적인 웰빙과 로하스(LOHAS)바람에 부응하는 건강 기능성, 고부가가치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구축
 - 공동 인프라 구축, 관련기업 유치활성화, 지역내 스타기업 육성 등 산업집적화 유도과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지역내 바이오 클러스터의 특화 및 연계 강화와, 국내외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 최고 발효식품, 발효미생물 및 소재, 발효한방 분야 클러스터로 육성
- 아시아 최대 식품클러스터 육성
 - 국내 식품 관련 대기업(CJ, 풀무원, 롯데칠성음료 등)의 기업 및 투자유치와 클러스터 내 연구소 적극 유치
 - FTA로 인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기업의 아시아 식품시장 전진기지 육성차원의 외국 식품관련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5) RFT 및 대체에너지 분야

- RFT Valley 조성으로 RFT산업 육성
 - FTA와 무관하게 기존의 RFT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추진
 - 지역 소재의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이클로트론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
- 친환경 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연계산업 육성
 - GM대우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료전지차 육성방향과 결합하여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인프라와 연료전지클러스터 구축 활성화
 - 일본 자동차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대비하여 국

내 연구 및 생산기반 시설 확보에 주력

- 에너지자원 다변화,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청정 미래에너지 확보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연구 및 생산기지 육성 기반 마련

(6) 전통문화·영상·관광 산업 분야

○ 도내 영상관광 산업에 타격 예상

- 부안 영상테마파크,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등 영상관광의 허브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차질 예상

○ 한 브랜드 수출 전략 모색

- 현재 추진 중인 한 브랜드(한식, 한글, 한옥, 한지, 한복, 한국음식)사업을 전북지역이 전통문화콘텐츠 사업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
- 한 브랜드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어서 콘텐츠와 제품의 체계화와 함께 수출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한 브랜드 수출 중심 지역으로 발전
- 향후 한 브랜드의 온라인 홍보방안과 해외 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

○ 판소리, 전통음악 등 전통공연문화 중심지 육성

- 최근 공연 '난타'등으로 우리나라 공연문화의 세계적 우수성이 부각되는 점을 착안하여 전통문화 중심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문화 공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7) 일반 분야

■ 제조업 등 피해구제대책 마련

○ 산업피해구제 담당기관으로서 전북무역위원회(가칭) 신설

- 지역차원에서 무역구제와 관련한 법안의 검토 및 담당 일원화, 중앙 무역위원회의 기능보완,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근로자 전직, 재취업 지원,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담당

○ 고용유지 지원금 확보 및 지원

-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제조업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경우 고

용유지 지원금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의 안전성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직상담, 고용정보 제공 등과 함께 재고용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등 지원대책을 수립

○ 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활성화 대책 수립

- 중소기업은 전북 제조업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활성화대책 수립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지원분야는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한미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미국 정보조달시장 진출 및 참여 확대 등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현지 유통네트워크 구성 등 비가격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및 일본에 치중된 중소기업의 대외거래를 미국으로 확장하도록 유도
- 미국 시장진출과 관련된 경험 전수 및 확산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포럼 활성화나,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의 구축을 통해 중간재 부품 등 미국의 글로벌 구매수요 관련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성 제고 등의 대책 마련

■ 서비스업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국가 이미지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물론 고용창출의 주 산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신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됨
- 싱가포르의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태국의 의료관광, 영국의 디자인산업, 독일의 전시산업, 필리핀의 외국인 은퇴유치산업, 호주의 교육산업, 그리고 뉴질랜드의 영화관광산업과 같이 서비스업의 특성화 전략산업 모색
- 글로벌 서비스산업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겸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고기술과 고숙련이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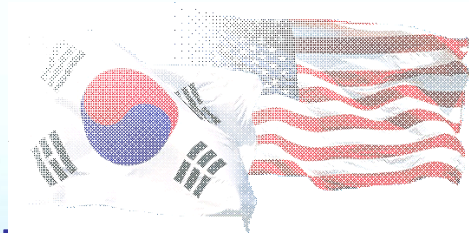
한미 FTA체결 이후 전북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수송기계산업팀장 이 항 구

한미 FTA체결 이후 전북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안

2007.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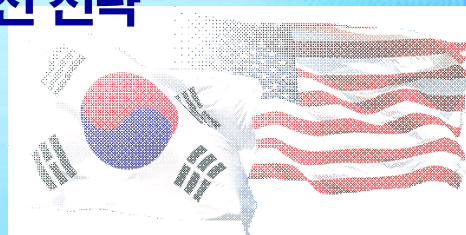


산업연구원, 수송기계산업팀장
이항구

1

발표순서

- I 주요 협상 타결 내용
- II 양국 진출 환경의 개선
- III 한미 FTA의 효과 분석
- IV 자동차산업의 발전 전략



1. 주요 협상 타결 내용

총평

상호 균형된 이익확보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실현

관세철폐로 시장접근 최대 확보

- **분품포함**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조기 이익 실현
- 미래유망품목에 대한 단계적 시장접근 확보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 국내 자동차시장 경쟁 촉진
- **高**품질 **低**價제품 공급으로 소비자이익 증대

국내 제도개선 과제 해결

- 복잡과중한 세제 등 국내적 과제 동시 해결
-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구조고도화 기반 마련

- 투자유입 및 기술협력 확대로 생산성 제고
- 선진 경영관리시스템 도입

1. 주요 협상 타결 내용

1. 관세양허 : 상호 조기철폐로 실질적 시장개방 확보

미국측 양허

- **대미 자동차수출액 100%에 해당되는 품목의 조기철폐** 및 부품 즉시철폐
 - 최대 수출품목인 3천cc 이하 승용차 (수출비중 73%) 즉시철폐
 - **高**수출유망품목인 3천cc 초과 승용차 (수출비중 25%) 3년내 철폐
 - * 최근 미국내 판매 둔화 : 현대 2.4 엔진공장 신축중
- **고관세(25%)로 철저히 보호되던 픽업트럭 등 화물차10년내 철폐**

우리측 양허

- **자동차 全 품목 및 자동차부품 즉시철폐**

1. 주요 협상 타결 내용

2. 표준현안 : 기업대응 유연성을 높이는 선진규제 도입

배출기준(KULEV)

- 가장 엄격한 美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제도(Fleet Average System)** 도입
 - 오염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업계의 규제대응 유연성 부여

배출진단장치(OBD)

- '09년 OBD 전면부착의무는 유지하되, 단계적 의무비율 조정
 - '07년 50%, '08년 75% 의 연도별 의무를 면제하고 '09년 100% 충족의무 부과

안전기준

- 지금까지 전면 인정하던 미국 기준을 6,500대 이하 제작자에게만 선택적 허용
 - 제작자별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한국기준 적용

1. 주요 협상 타결 내용

3. 세제 : 복잡·과중한 자동차세제 개선

특별소비세

- 협정 발효 후 **3년에 걸쳐 5%로 단일화**

구분	800 미만	800 ~ 1,000	1,000 ~ 2,000	2,000 초과
현행	면제		5%	10%
개선	발효시	면제	5%	8%
	3년후	면제		5%

자동차세

-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 인하**

	현행(5단계)	개선후(3단계)
800cc이하	80원/cc	80원/cc
800cc초과 ~ 1,000cc이하	100원/cc	
1,000cc초과 ~ 1,600cc이하	140원/cc	140원/cc
1,600cc초과 ~ 2,000cc이하	200원/cc	200원/cc
2,000cc초과	220원/cc	

1. 주요 협상 타결 내용

2

4. 표준작업반 : 양국간 표준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자동차표준WG

- 양국 자동차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로 구성되는 WG 설치
 - 필요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 양국 자동차표준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상호 의견 제시
 - ➔ 미국 환경·안전기준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규제순응비용 절감
 - ➔ 선진 규제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규제 도입 가능
- 표준관련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 국제 기준과의 조화 가능 및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1. 주요 협상 타결 내용

2

5. 기타

원산지규정

- 미측 기준(순원가법)과 우리 기준(FOB 공제법/집적법) 선택적 사용
 - ➔ 국내기업의 추가 행정비용 및 법률비용 부담 해소

신속분쟁해결

- 자동차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일반 절차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적용
 - ➔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큰 만큼 빠른 문제해결의 필요성
- 합의사항에 대한 상호 의무부담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마련
 - ➔ 의무위반으로 심각한 영향 발생시 일반관세로 복귀, 위반시정시 특혜관세 회복

II. 양국 진출 환경의 개선

한미FTA에서의 자동차산업의 위상

교역

-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최대 품목 : 승용차(2006)
- ▶ 미국의 최대 수입 제조상품 : 승용차(2006)
- 자동차분야의 통상마찰 빈번

투자

- ▶ GM의 대우 인수 : 91만대 생산능력
- ▶ 국내 완성차업체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 : 30만대 ⇒ 60만대로 확충

기술 및 구매협력

- ▶ 미래형자동차개발협력(미국 개발 프로젝트 참여)
- ▶ 엔진 및 모듈부품 공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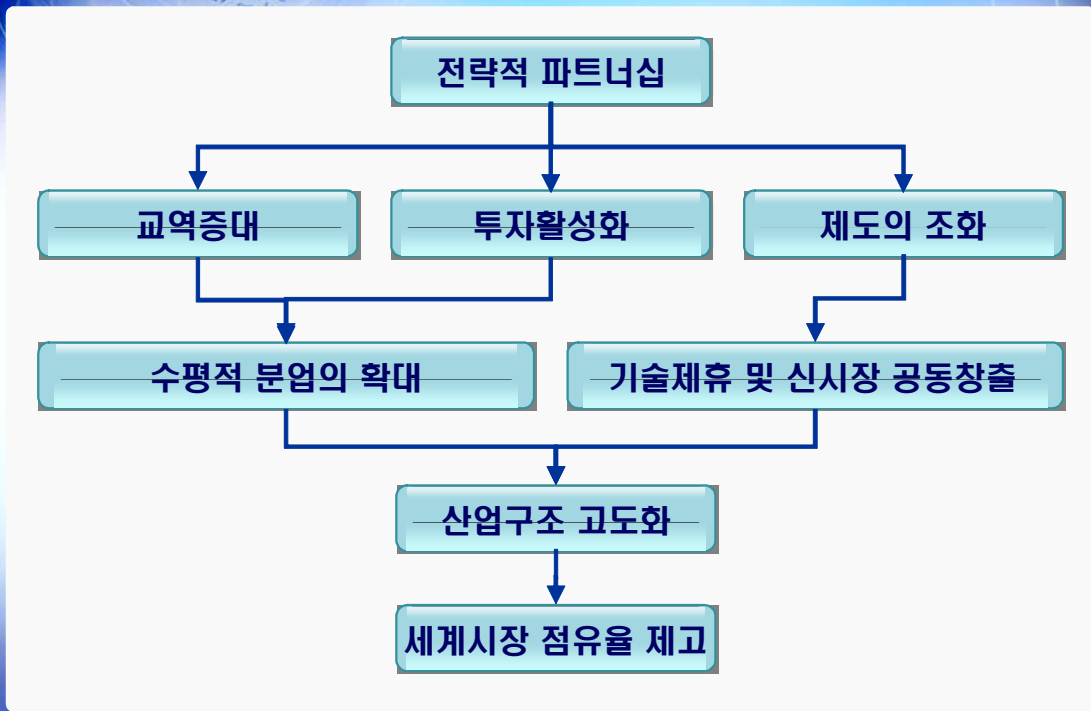
9

II. 양국 진출 환경의 개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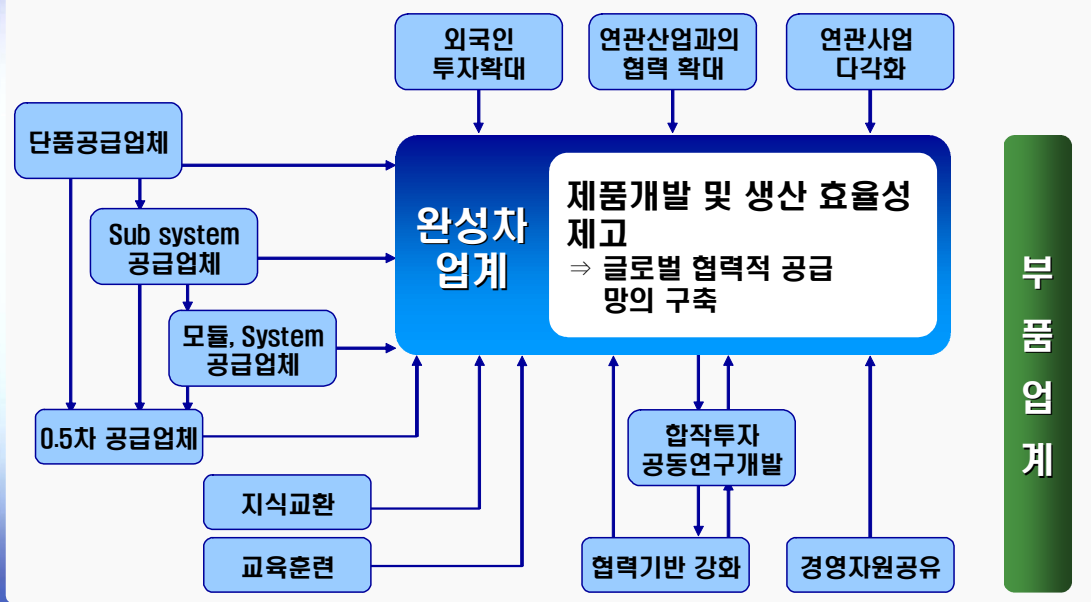
II. 양국 진출 환경의 개선



11

II. 양국 진출 환경의 개선

양국 자동차업계간 상생 협력 확대



12

II. 양국 진출 환경의 개선



III. 한미 FTA의 효과 분석

단기 및 장기 효과

-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연평균 6억 9,294만 달러씩 증가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생산성향상 등)가 이루어지면서 8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 부품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보다는 대세계 수출 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예상
- 대미 수입은 완성차와 부품 모두 협정 발효 초기에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할 예상
- 대세계 수입 역시 대미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전환으로 소폭 감소할 예상

〈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 장단기 경제적 효과

단위: 천달러

	수 출			수 입		
	단기대미	장기대미	장기세계	단기대미	장기대미	장기세계
완성차	659,095	106,834	275,496	19,817	- 403	- 5,876
부품	33,841	13,386	66,210	54,121	- 1,301	- 6,780
자동차산업	692,936	120,220	341,707	73,937	- 1,704	- 12,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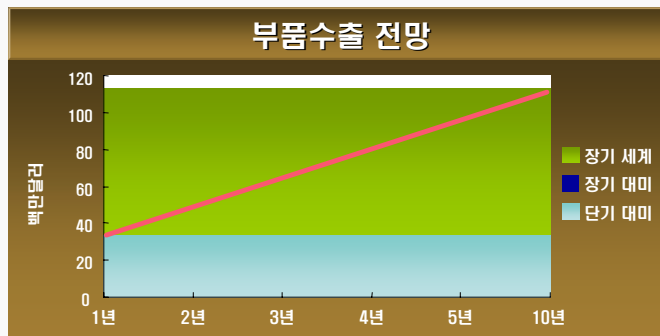
주: 10년간 연평균

III. 한미 FTA의 효과 분석



단기 : 중소형 승용차 수출 증가
중장기 : 상용차 수출 증가
 수출 차종 다양화에 따른
 여타 지역 수출 증가

수출 성과는 자동차업계의 노
 력에 따라 좌우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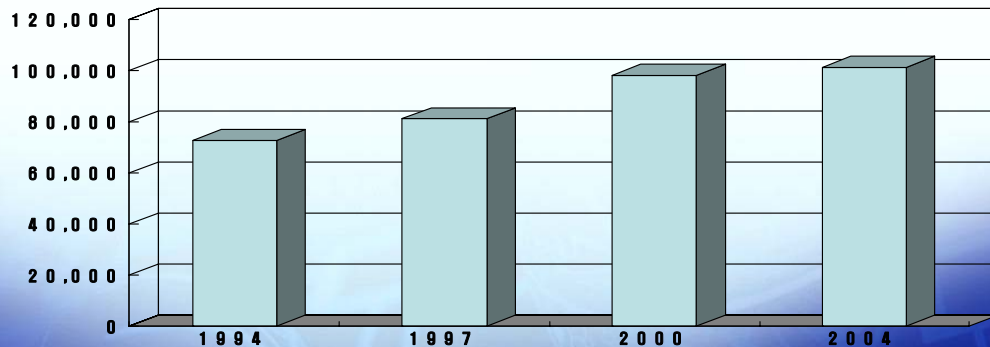
단기 :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국내 완성차업계의 현지
 조립 수요
 완성차 판매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장기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여타 지역 수출 증가

III. 한미 FTA의 효과 분석

NAFTA의 사례 : 캐나다의 자동차부품산업은 미캐 기업간의 기술협력과 생산협력
 이 증가하면서 구조고도화를 달성하여 고용을 증대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대미 수출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인 직접투
 자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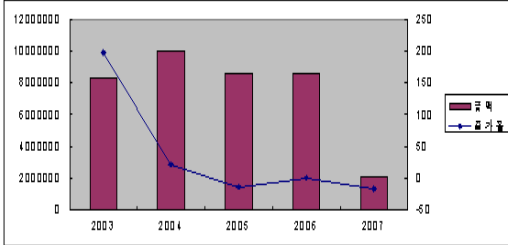
< 그림 > 캐나다 부품산업의 고용 추이(명)



자료 : Hufbauer(2005), NAFTA Revis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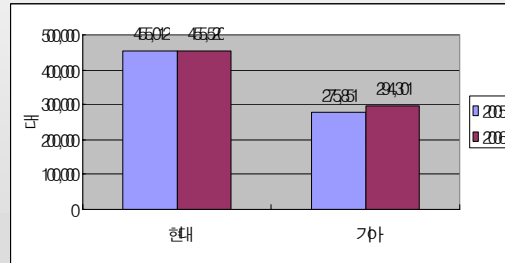
III.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완성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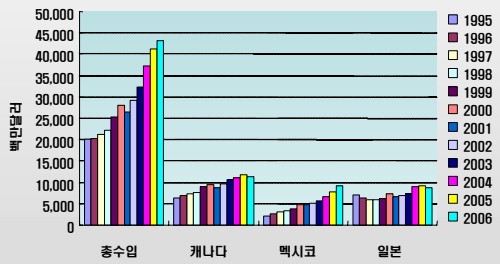


주 : 2007년은 1-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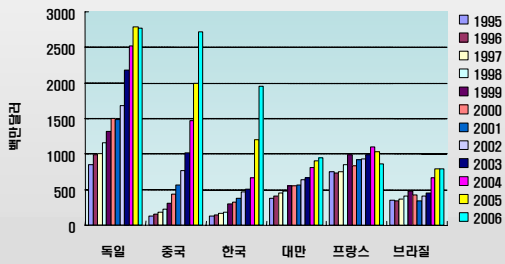
현지 완성차 판매



경쟁국의 대미 부품 수출



경쟁국의 부품 수출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미국시장의 철저한 분석

빅 3의 경쟁력 저하와 일본업체의 약진 : 판매 차종의 다양화와 고객 서비스 강화
: 2009년 빅 3의 구조조정 완료, 중국산 차의 시장 진입에 대비

How the Industry Fared

	Cars	Light Trucks	Total
MAY 2006	732,247	752,736	1,484,983
MAY 2007	778,651	777,296	1,555,947
CHANGE	+6.3%	+3.3%	+4.8%
ADJUSTED CHANGE*	+2.2%	-0.7%	+0.7%
ANNUAL SELLING RATE (millions)	7.98	8.09	16.07



BIGGEST GAINER
↑ Toyota Prius
+184.9%

Most Popular Cars and Trucks

Data for the United States.		May 2007 Sales	Change from May 2006 Sales
CHEVROLET	Silverado	63,790	+ 10.9%
FORD	F series	61,939	- 15.1
TOYOTA	Camry	50,126	+ 11.8
TOYOTA	Corolla	45,238	+ 4.7
HONDA	Civic	39,993	+ 32.6
CHEVROLET	Impala	35,665	+ 44.7
HONDA	Accord	31,915	- 17.0
DODGE	Ram	31,327	+ 1.8
TOYOTA	Prius	24,009	+184.9
NISSAN	Altima	23,980	+ 4.9
CHEVROLET	Cobalt	22,409	+ 1.4
FORD	Focus	21,269	+ 0.3
HONDA	Honda CR-V	19,513	+ 35.9
GMC	Sierra	19,467	+ 5.4
FORD	Escape	18,953	+ 9.1



BIGGEST LOSER
↓ Honda Accord
-17.0

How Automakers Fared

	May 2007 Sales	Adjusted Change*	Market Share
GENERAL MOTORS	371,233	+ 5.4%	23.9%
TOYOTA	269,023	+ 9.7	17.3
FORD	250,425	-11.7	16.1
DAIMLERCHRYSLER	221,164	- 0.1	14.2
HONDA	145,367	- 1.4	9.3
NISSAN	93,080	+ 3.2	6.0
HYUNDAI	43,885	- 0.8	2.8

Sales for DaimlerChrysler include Mercedes; sales for Ford include Volvo and Land Rover; sales for General Motors include Saab.

Source: Ward's AutoInfoBank

*Based on average daily sales adjusted for any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selling days in a month.

The New York Times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전략 수출 품목의 발굴

모듈부품 및 부품품 등의 가격경쟁력 유지 및 품질과 성능 개선

대미 수출 증가품목	단위: 천달러			
	HS	품목명	연평균	10년누계
	87032300	1500~3000 cc의 가솔린 승용차	463,974	4,639,740
	87032400	3000 cc 초과 가솔린 승용차	157,550	1,575,502
	87032200	1000~1500 cc의 가솔린 승용차	33,331	333,311
	87089980	기타자동차부품	7,694	76,942
	87082950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품품	4,512	45,118
	87087045	로우드휠 및 그부분품과 부품품	4,105	41,049
	87083950	제동장치와 그부분품	3,236	32,361

● 대미 수출 증가 주요 품목으로는 중형 승용차와 대형승용차 및 차체, 로우드 휠 관련 부품과 제동장치와 그부분품 등

대미 수입 증가품목	단위: 천달러			
	HS	품목명	연평균	10년누계
	8708299000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품품	21,230	212,298
	8708999000	기타자동차부품	12,782	127,820
	8708291000	기타자동차부품	8,971	89,708
	8708400000	기어박스	7,027	70,268
	8703241000	3000 cc 초과 가솔린 승용차	5,028	50,285

● 주요 수입품으로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품품, 기타 자동차부품, 기어박스 등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글로벌 소싱의 활용

GM의 글로벌 조달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 전략적 기술 제휴의 확대

●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대체연료(유연연료) 부품 공동 연구개발

- GM은 2011년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를 목표로 가정에서 전기와 태양광을 사용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 개발에 착수

● 전장부품 및 미래형 자동차 부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 표준화

- 2010년 미국 자동차업계의 전장 부품 수요는 5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 빅 3, 대체연료(에탄올 85%) 차량 생산 2010년까지 배증한 200만대 계획
- 대체연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2012년 전체 생산의 절반 목표
- 국내 연구개발 기반 확충



한국 내 디자인 시보레 Trax 컨셉카

21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 미국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미국 정부 및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공동연구개발 및 상용화 모색 ?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 표 > 미국의 동력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구분	2006	2008	2012	2015	2018	2020
휘발유엔진	연비향상	CAFE 규정 강화	[Progress bar]			
디젤엔진	보급확대					[Progress bar]
하이브리드	개발 및 보급확대					[Progress bar]
유연연료	연구개발 상용화					[Progress bar]
연료전지	연구개발 상용화					[Progress bar]
천연가스	보급확산					[Progress bar]

22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공통 기술개발 분야의 발굴

- Adaptive Cruise Control
- Adaptive Headlamps
- Adjustable Gas and Brake Pedals
- Advanced Air Conditional System
- Advanced Laminated Side Window Glass
- Advanced Tinted Glass
- Advanced Tire Pressure Monitoring
- Advanced Windshield Washing System
- Airless Tire
- Automated Driving Software
- Blind Spot Detection and Warning
- Bluetooth Connectivity
- Brake-By-Wire
- Child Left in Vehicle Warning
- Clean Diesel

- Climate-Controlled Seats-Heated and Cooled
- Digital Radio
- Digital Surrounded Audio System
- Drive-by-Wire
- Driver Recognition System
- Dynamic Seating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Flexible Format Audio
- Four Wheel Steering
- High-Performance Halogen and Xenon Lighting
- Inflatable Seatbelts
- Intelligent Navigation System
- Invisible A-B-C Pillars
- Lane-Departure Warning and Aid

23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공통 기술개발 분야의 발굴

- Light-Emitting Diode (LED) Lighting
- MP3/iPod Audio System Interface
- Music Storage Drives (MP3)
- Non-Invasive Bio-Sensors
- Occupant Sensing for Intelligent Airbag Deployment
- On-board Personal Multimedia Systems
- Park Assist and Object Detection
- Park-By-Wire
- Passive and Active Infra-Red Night Vision
- Pedestrian Sensing and Protection System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
- Personal Gaming Systems
- Pre-Crash Sensing

- Rader Enabled Collision Warning Systems
- Rain Sensor and Automatic Wipers
- Real Time Traffic Updates for Navigation
- Rear of Vehicle Cameras
- Satellite Radio
- Satellite Video
- Smart Run-Flat Tires
- Steer-By-Wire
- Variable Valve
- Vehicle and Home Connectivity Systems
- Voice Activated Controls and Features
- Voice/Fingerprint Vehicle Entry Systems
- Wireless Hands-Free Cell Phone

자료 : HarrisInternational, 2006 Autotechcast
U.S.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ies

24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 ▶ 전북 자동차산업 특화분야 : 상용차 및 부품
미국 상용차시장 : 연 300만대
- ▶ 근거리 전기자동차 및 부품 생산 : 고품친화형 산업

〈 표 〉 전국 상용차량 생산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4년		2005년	
	생산량 (대)	점유율 (%)	생산량 (대)	점유율 (%)
전라북도	52,031	89.1	53,803	88.8
전라북도 외	6,370	10.9	6,788	11.2
소 계	58,401	100.0	60,591	100.0

25

전기자동차



실리콘밸리 창업기업 Tesla Motor

100,000달러 고성능 스포츠 카



중국산 3륜 전기차 Zap Zebra

9,0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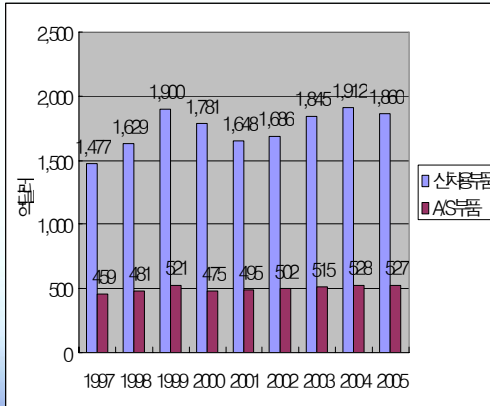
1회 충전 64km 주행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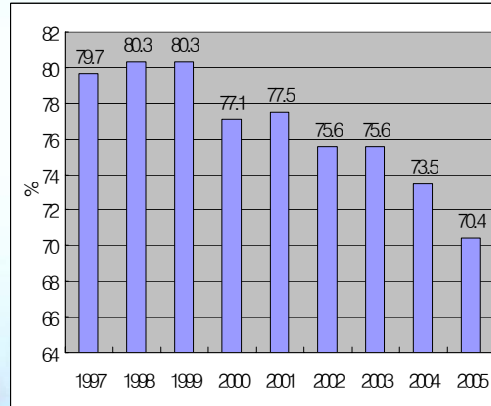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2010년 완성차 수요 1,800만대 상회 : 인구와 소득 증가
 빅 3의 미국산 부품 조달 비율 점감

미국자동차부품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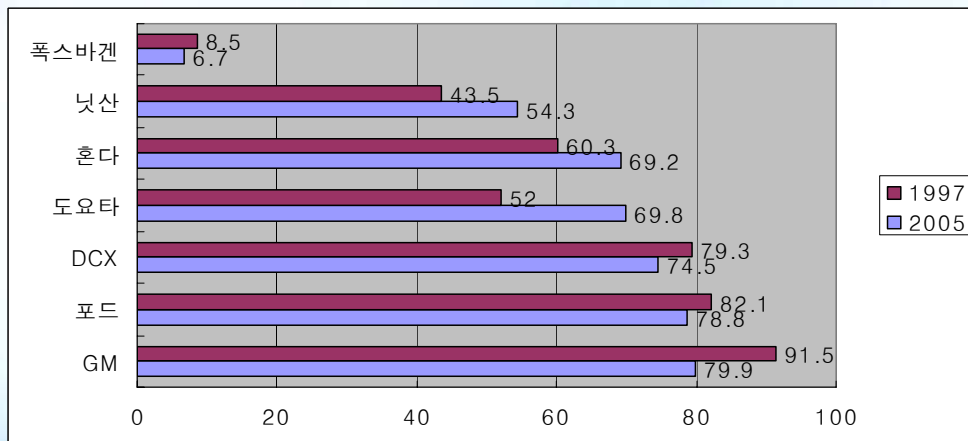
미국산부품 조달 추이



자료 : Desrosiers Automotive Consultants Inc. 2006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북미업체의 현지조달 비율



자료 : CSM International

주 : 미국과 캐나다산 부품사용 비율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미국내 완성차업체의 부품조달

	캐나다/멕시코산	수입부품	미국내미국업체부품	미국내외국업체부품
1997	11.2	9.1	67.7	12.0
2000	12.6	10.3	57.0	20.0
2003	13.3	11.1	50.6	24.9
2004	14.2	12.3	46.3	27.2
2005	15.5	14.0	40.9	29.6

자료 : Desrosiers Automotive Consultants Inc.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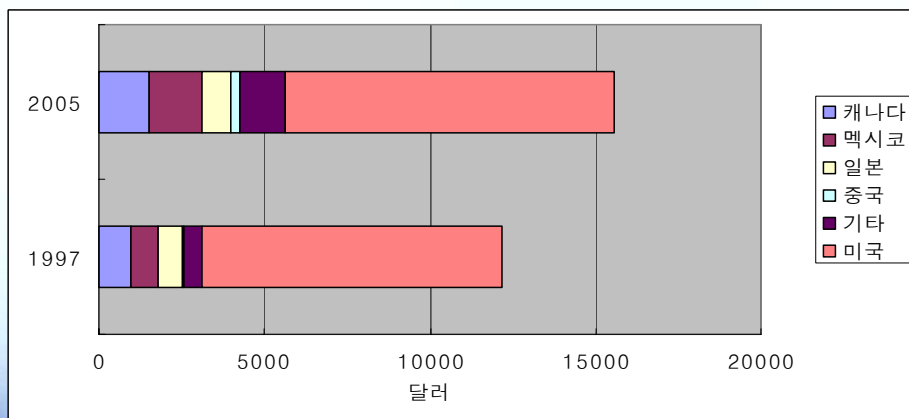
29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미국내 생산자동차의 부품구성

중국산 부품 사용 비중 증가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현지 생산 증가



30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강점 · 기회분야 : 공세적인 전략
 강점 · 위협분야 : 다각화 전략
 약점 · 기회분야 : 제휴의 확대
 약점 · 위협분야 : 방어적 전략,
 구조개편



31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기업의 대응 전략

- 미국 자동차시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미국 소비자, 시장,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분석력 강화
- 글로벌 소싱의 활용 : 유연생산 시스템 구축
- 대체연료차량과 상용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 가속화
- 경소형 승용차 등 틈새시장 개척 : 저가 소형차 개발
- 전장 부품 기술(혁신)역량 강화
- 양국간 모듈화 촉진 및 시스템 부품 공동 개발을 위한 집적화, 전문화와 협업화 기반 강화
-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력 강화
- 미국내 A/S 하부구조의 확충

32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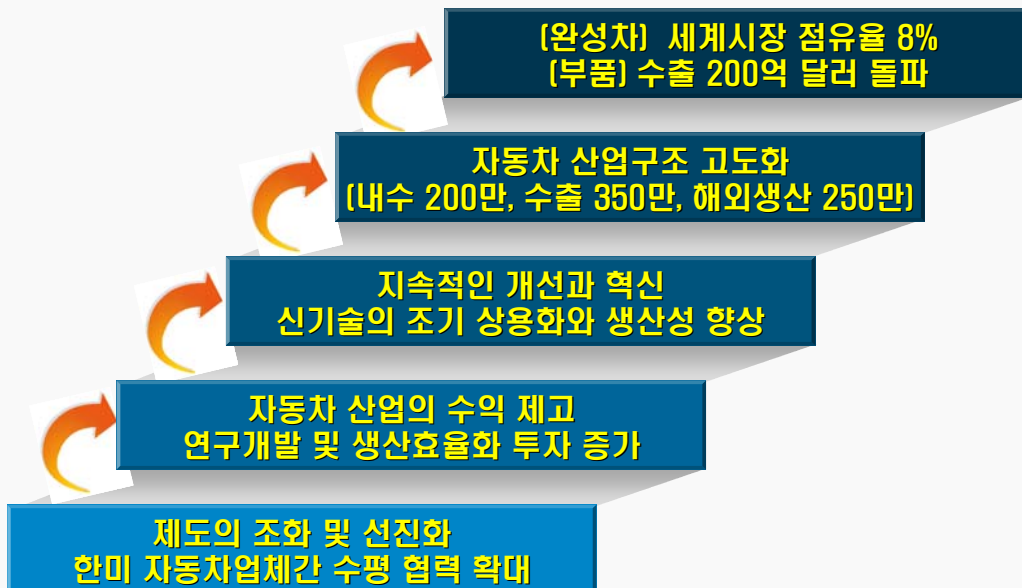
▣ 정부의 지원 정책

- 지역별 경제협력 강화 : 동남부지역 및 오대호지역
 - 미 의회의 부정적인 시각 해소
-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목표로 한 미국기업의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유치
- 부품업체의 품질 및 제품개발 효율성 제고, 마케팅 지원
 - 지원센터의 연계 및 인력양성사업과의 통합, 국내 부품 수요기업 방문 전시회 개최 지원
- 주문 양산이 가능한 공정 지원
 - eManufacturing 소프트웨어 지원
- 공급망 협력 활성화 지원
 - 부품업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지원(법률, 회계 등)
- 중소 부품업체의 구조전환 지원

33

IV.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 산업구조 고도화의 비전



34



MEMO

MEMO

MEMO

MEMO